



2015 개정 교육과정

- 고교교양 -

심리학

1. 성격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 실증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이를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또한 심리학은 인문·사회 과학과 자연 과학의 접합 지점에 있는 간학문적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문 융합적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미래인재 역량을 함양하기에 적절한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양 과목으로서의 ‘심리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서의 ‘심리학’은 청소년기 발달 단계를 반영하여 고등학생들의 자아정체감 확립, 자기통제력 습득, 진로개발 능력의 함양을 통한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심리학적 지식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사고와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개인차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이해하게 한다. 심리학 연구 분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초적 이해를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 분석적인 사고와 정보처리능력의 개발,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실생활에 창의적이고 학문 융합적으로 적용하는 사고력을 기름과 동시에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셋째, 심리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생활인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상과 같은 심리학 과목의 성격은 심리학 과목을 통해 자기관리능력, 배려의 공동체 의식,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자기관리능력’은 성격과 도덕성의 발달 및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

둘째, ‘배려의 공동체 의식’은 인간의 일반적인 발달 과정과 심리적 사건의 전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자기관리능력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이해, 배려와 나눔 등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

셋째, ‘과학적 문제해결력’이란 심리학이 지향하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익히고, 합리적인 정보처리와 객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

넷째,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이란 심리학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결과를 서로 연결 자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이다.

2. 목표

심리학 교육과정의 주요 목표는 ‘심리학’이 인간의 실제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토대로 인지와 사고, 성격과 발달적 측면에서의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정체감 및 타인과 나의 관계, 그리고 삶과 적응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및 공동체 의식 등의 미래인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심리학 과목의 목표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심리학의 학습과정은 간학문적 학습, 학생 중심 및 문제 중심의 교수·학습활동과 평가 활동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의 배경에서 ‘심리학’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학의 학문적 특징, 다양한 연구영역과 집적된 이론적 사실을 이해하고 응용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닌 교양인으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둘째, 인간의 사고와 학습의 원리 및 과정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셋째, 성격, 도덕성과 사회성 등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강하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넷째,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해결력과 적응 능력을 기른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심리학에 대한 이해	과학과 생활	심리학은 인간 개인과 집단의 모습을 이해하는 수단이며, 과학적 사고과정은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사례를 통한 심리학의 학문적 특성과 직업 분야 이해하기
	심리학과 진로	심리학 여러 연구 분야는 주변 환경과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self) 알기	지각, 기억과 학습	지각과정의 오류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억 과정, 학습 및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이해하고 실천할 줄 있다.	학습과 문제해결의 과정을 도식화하여 설명하기
	동기와 정서	동기와 정서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정적 동기와 부정적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동기와 성격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대비시키고 건강한 동기와 성격의 요소를 진술하기
	성격과 자아정체성	건강한 성격을 지니려면, 자아, 자아정체감의 형성 과정이 중요하며, 자신의 성격과 자아정체감을 파악하고 건강한 성격과 자아정체감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사회와 나: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관계	집단 과정과 집단 갈등의 이해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관계성을 구축할 수 있다.	집단과 환경의 유형별로 개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영향 설명하기
	사회적 환경	가족, 학교, 미디어 등 개인의 생활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이다.	
삶과 적응	적응과 부적응	적응과 부적응의 기준을 이해하고 청소년기의 행복한 삶의 조건들은 여러 친구들과 비교해서 살펴본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스트레스·부적응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 설명하기
	강점과 행복 찾기	자신을 이해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건강한 적응과 행복을 추구한다.	

나. 성취 기준

(1) 영역 1: 심리학에 대한 이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정의와 목표,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생활에서 심리학 지식이 어떤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며,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다양한 직업 세계에 어떤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직업으로서의 심리학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 (가) 심리학의 정의와 목표를 이해한다.
- (나)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 과정을 이해한다.
- (다) 심리학의 여러 분야를 이해하고 실제 자신과 타인,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 (라) 심리학과 관련된 직업과 그 최근 경향에 대해 이해한다.

〈교수·학습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 (가)는 학문적 정의와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심리학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는 학생들이 익숙한 (물리나 화학 등의) 과학 실험과정과 대비시켜 심리학적 현상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다)와 (라)는 직업세계에서 심리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사례를 각자 생각해보고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

(나) 학습 요소

- 심리와 물리, 동물과 인간의 행동, 과학적 연구, 정신물리학, (심리적·물리적) 환경, 직업세계, 직업적성과 직업흥미

(다)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① 동물과 인간의 행동 상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대비시켜보도록 한다.
- ② 심리학과 일반 과학(물리학)의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차이와 공통점을 사례를 통해 다루어 줌으로써 심리학의 과학적 접근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 ③ 직업세계에서 심리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사례를 토론, 개별 또는 집단 프로젝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조사활동을 통해 발표하고 각자 정리하는 학습활동이 바람직하다.

- ④ 학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사진, 도표, PPT 등의 자료를 교사가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어 필요할 경우 보조 자료로 제시한다면 더 효과적인 교수·학습활동이 될 수 있다.
- ⑤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과목일 수 있으므로 개방적인 태도로 자신과 타인의 내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가)는 실생활에서 심리학적 지식의 적용 사례를 발표하고 심리학의 의미와 정의를 유추해내는 과정을 평가한다.
- (나)는 심리학의 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이 과정이 일반 과학의 연구과정과 대조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다)와 (라)는 특정 직업 분야에서 심리학적 지식이 활용되는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한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나) 평가 유의사항

- ① 학생들이 단순한 기억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지양한다.
- ② 지나치게 학문적 수준에서의 평가 방법은 지양하고,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각 성취기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심리학이 여러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융합 내지는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이 속해 있는 특정 분야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초점은 심리학이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영역 2: 나(self) 알기

인지와 정서의 기본적 주체로서 나(self)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기 심리적 현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인간이 외부 세계와 정보를 지각하고 학습하는 기본 원리와 과정, 이에 근거한 문제해결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정서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동기, 성격과 행동 및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특성인 자아정체감 발달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각의 오류를 알아보고 각각의 원리를 이해한다.
- (나) 기억의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이해한다.
- (다) 합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원리를 이해한다.
- (라) 동기와 정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마) 부정적 동기와 정서의 발현과정과 관리 방법을 이해한다.
- (바) 성격의 의미와 형성과정, 그리고 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한다.
- (사) 나(self), 자아존중감(self-esteem) 및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 (아) 성격과 자아정체성의 역할과 개인차를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 (가), (나), (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학생의 개인적 경험을 교수학습활동의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 (라), (마) 역시 서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동기와 정서의 심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생리적 변화까지 함께 다루어 줌으로써 심리적 현상과 생리적 현상의 동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한다.
- (바)는 주변의 동료 학생의 사례를 통해 성격과 행동 간의 관계를 예측해보게 하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성격과 행동 간의 관계를 반성해보게 한다.
- (사)와 (아)는 성격검사, 자아정체감 검사 등 심리검사를 실제 실시하여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내용을 대비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학습 요소

- 지각, 지각의 오류, 기억의 과정(정보처리이론), 합리적 사고, 문제해결, 동기, 정서, 성격과 행동,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개인차

(다) 교수학습 방법(전략)의 유의사항

- ① 지각의 오류를 유발하는 학생 자신이 경험을 사례로 활용하여 지각의 원리와 지각 오류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② 정보처리모형을 활용하여 기억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주고, 기억과 망각의 원인을 추론하게 한다.
- ③ 합리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따라 어떠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설명하게 해본다.
- ④ 동기와 정서, 행동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부정적 동기와 정서의 출현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게 한다.
- ⑤ 성격, 행동, 자아존중감 및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자신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⑥ 동기, 정서, 성격, 자아존중감과 자아정체감 등은 학생들이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사례 발표 시 자원자를 확보하거나 가상 사례를 선정하여 수업에 활용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가). (나), (다)는 서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사례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개인의 경험을 평가의 기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라)와 (마)는 서로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동기와 정서의 심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생리적 변화까지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 (바)는 학문적 수준의 성격이론이 아니라 성격의 형성과정과 그것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평가한다.
- (사)와 (아)는 성격, 나(self),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다.

(나) 평가 유의사항

- ① 자신 혹은 동료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② 동기와 정서, 성격,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이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다루는 평가 문항 혹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영역 2의 학습 분량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평가의 목적, 도구, 범위 등을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가능한 경우 영역 2에서 다루는 내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중간시험, 기말시험에서의 성공·실패 경험, 그리고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사건 등을 평가의 주제로 삼는 것도 충분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3) 영역 3: 사회와 나: 사회적 정체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배제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나(self)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자신에 대한 이해, 집단 과정과 갈등 해소, 주변의 심리적·물리적 환경과 자신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도와주고 장기적으로는 원만하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심리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 (가) 가족, 친구, 취미집단 등 사회 속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집단을 이해한다.
- (나) 사회적 존재로서의 개인과 타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사회인지 개념을 이해한다.
- (다) 동조, 순종, 태도 변화, 집단행동과 같은 집단 과정을 이해하고 집단 내 갈등의 해결책을 찾는다.
- (라) 학교 안 집단생활에서의 대인 관계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위한 해결책을 찾는다.
- (마)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바) 미디어(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등) 환경에서의 상호작용과 미디어 환경 내에서의 개인과 실제 환경에서의 개인적 특성의 심리적 차이를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 (가)는 각자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의 종류와 그 속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한다.
- (나)와 (다)는 집단 속에서 긍정적 대인관계와 부정적 대인관계의 사례를 통해 집단 과정과 갈등을 이해하고, 문제 상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예상하게 한다.
- (라)는 학교에서 교우관계의 형성과 유형을 조사하고, 건강한 교우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추론해보게 한다.
- (마)와 (바)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종류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특히 미디어 혹은 스마트 환경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비교해보도록 한다.

(나) 학습 요소

- 집단, 갈등과 갈등 해소, 집단행동과 집단과정, 교우관계, 적응과 부적응, (심리적·물리적·미디어) 환경

(다)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①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 집단마다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가 다름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 ② 각 집단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로 인해 갈등상황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폭력, 따돌림 등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교우관계의 발생원인 및 예방과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회를 통해 정리해보게 한다.
- ④ (심리적·물리적·미디어) 환경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정리하는 교수학습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사회적 정체감을 다루는 영역 3의 교수학습활동의 초점이 적응적 대인관계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가)는 각자 속해 있는 다양한 집단의 종류, 각 집단에 연결된 역할과 기대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나)와 (다)는 집단 속에서 긍정적·부정적 대인관계의 특징을 구분하고, 주어진 사례에서 최선의 예방책과 해소방안을 유추해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라)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의 사례를 제시하고 원인과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마)와 (바)는 (심리적·물리적·미디어) 환경의 종류를 구분하고, 환경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사례를 통해 비교·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나) 평가 유의사항

- ① 집단, 역할과 기대, 집단과정, 집단행동, 환경의 종류 등은 기억 수준에서의 평가 방안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 ② 갈등,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의 예방 및 해소방안, 환경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사례를 통해 비교·설명할 수 있는지 분석력과 추리력뿐만 아니라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까지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미디어 환경 등의 내용은 학생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의 내용을 구성할 때 이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4) 영역 4: 삶과 적응

고등학생이 속해 있는 청소년기는 위기의 단계인 동시에 가능성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적응과 부적응의 유형을 이해하고 부적응을 극복하는 수단을 학습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대처 전략을 습득하는 것은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 (가) 일상생활에서 생활,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적응과 부적응 요소를 이해한다.
- (나) 부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종류와 대처방안을 이해한다.
- (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행복한 삶의 특성을 이해한다.
- (라)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자신의 행복한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한다.
- (마)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 (바) 자아실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태도를 갖는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 (가)와 (나)는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적응과 부적응의 개념, 유스트레스(eustress)와 디스트레스(distress)의 차이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나)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burnout)의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진행 단계별로 심리적·생리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차악하고 대처방안을 추론하게 한다.
- (다)와 (바)는 발달단계별로 행복한 삶의 특징과 요소를 예측하고,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한 선행조건과 태도를 자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라)와 (마)는 다중지능검사 등의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강점을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추하도록 지도한다.

(나) 학습 요소

- 적응과 부적응, 스트레스의 종류와 영향, 스트레스 극복방안, 행복한 삶, 강점과 약점, 자아실현

(다)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① 적응과 부적응의 상대적 차이를 대비시켜보도록 한다.
- ② 스트레스의 종류(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와 원천을 학생 자신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학생 스스로 활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공유하도록 지도한다.
- ③ 발달단계별로 행복한 삶의 조건 혹은 요소가 다름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의 요소가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며, 자아실현의 의미를 충분히 수용하여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한다.
- ④ 모든 사람은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강점은 발전시키고 약점은 교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지니도록 지도한다.
- ⑤ 심리검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심리검사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자료나 사례를 준비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가)와 (나)는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 중에서 적응과 부적응,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구분하는 능력, 부적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 (다)와 (바)는 발달단계별로 행복한 삶의 요소를 예측하고,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의 개인적 정의를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라)와 (마)는 특정 사례의 심리검사 결과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후속 조치방안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평가 유의사항

- ① 단순한 기억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지양해야 하지만, 개념이나 여러 방안의

구분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필식 평가를 사용한다.

- ② 심리검사 결과의 해석, 진단 및 후속 조치의 제안은 상당 기간의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므로, (라)와 (마)의 평가 시 간단한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③ 적응과 부적응,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구분으로 그치지 말고 자신이 구분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심리학’ 과목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으로, 개인의 발달은 물론 환경과 인간 행동의 관계 등 인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통해 고등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도움을 주는 과목이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의 실제 삶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과 주변의 구체적 심리 현상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생활 경험을 내용을 토대로 심리학 과목의 성격과 목표, 성취기준 및 자기관리능력, 배려의 공동체 의식,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등의 과목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적합한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심리학의 개념과 원리 등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는 물론 이를 토대로 자신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방법을 실천한다.

(가) 각 영역별 내용은 위계성에 따라 제시된 것이어 순서대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의 중요성, 학생이나 교사의 관심사, 시기별 혹은 상황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염선하고 내용 간의 위계를 만들어 놓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심화 학습이나 보충 학습은 흥미를 가진 학생이나 필요한 학생에게 부과하되 자료의 소재나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함께 병행하는 식으로 상황적 특성에 따라 학습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학습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심리학 영역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사건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영역의 내용을 제시하는 등, 그 순서를 수정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심리학의 학문적 성격이나 과학적 접근보다는 동기와 정서, 성격, 사회적 관계 및 환경, 삶과 적응, 진로 등 심리학의 응용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내용을 먼저 다루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후 과학적 특성을 별도의 내용으로 다루어도 좋다.

- (나) 영역별 내용에 따라 강의, 토론, 개인 및 모둠별 프로젝트 학습, 사례연구 및 발표, 역할극 학습 등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합하게 적용한다.

각 영역에서 다루는 개념이나 원리에 따라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 개념이나 원리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연역적 혹은 귀납적 방식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또는 교사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 학생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서 해당 개념과 원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의 토론, 또는 개인별·모둠별 프로젝트 학습, 역할극 등 학생 자신의 일상적인 삶은 물론 타인들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쉽게 관찰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교수학습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다) 자기관리능력, 배려의 공동체 의식, 과학적 문제해결력,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등의 과목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교양 과목으로서의 ‘심리학’은 다루어야 할 영역별 내용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도 기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반성적 성찰, 타인의 관점 이해, 문제해결의 일반 과정과 조건, 창의·융합적 사고를 위한 다양한 과목 내용의 통합적 학습 등이 교수·학습 방법의 주요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및 집단 프로젝트 학습, 토론과 관찰 등을 통한 상대방 마음 읽기, 과학적 문제의 해결 사례 및 절차,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통합교과적 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된 교수학습경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라) 심리학의 학습 주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최신 사건과 연결될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 영역별로 관련이 있는 최신 사건을 주제로 선정하여 다양한 학습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은 언제든 사회적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대중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들 가운데 각 영역별 내용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신문이나 TV 등의 보도 자료, 인터넷 상의 댓글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학의 개념이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학습활동은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습득은 물론, 자신과 타인의 생각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양한 학문 영역의 내용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관리능력, 타인의 배려,

창의·융합적 사고 등을 배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마) 심리학의 각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학생 자신의 일상적인 학교 경험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사례들을 학습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기억과 학습, 문제해결, 동기와 정서, 사회적 관계,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심리학의 내용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경험 가능한 현상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특정 교과목의 학습경험,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개인적 혹은 집단적 체험을 교수·학습활동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습 흥미 유발과 학습 효과 극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실제 체험을 교수·학습활동의 자료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바) ‘심리학’의 교수·학습 상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심리학의 내용을 처음 접할 경우 미신이나 초심리적 현상 등 비과학적이거나 고등학교 심리학의 수준을 벗어나 내용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이 과학적 접근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도록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 가운데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대비시켜 다를 경우,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 역시 인간이 지니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현상이며,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추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리적 특성을 수정하거나 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셋째, 심리적 현상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할 경우, 개인적 사례를 선정하기 어렵거나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에는 가상 사례를 선정하도록 한다. 넷째, 심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개인과 타인의 이해, 적응적 대인관계 형성, 건강한 학교생활의 실천 방법 등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나. 평가 방향

‘심리학’에서의 평가는 과목의 성격과 목표, 영역별 성취기준, 교수 학습 방법은 물론 심리학 과목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과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심리학’ 과목의 평가는 심리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수준의 평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습한 지식과 이해도를 토대로 실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 과학적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의 평가를 더 중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능력을 토대로 타인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 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 의식과 태도의 형성을 중시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 심리학 과목에서 평가의 종류, 시기 및 방법은 사전에 계획하여 실시해야 하며, 성취기준에 근

거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학생들이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평가 방법을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과제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역별 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각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방법이나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또한 ‘심리학’ 과목의 각 영역별로 제시된 성취수준에 근거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 스스로 심리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건강한 인성을 진닌 독립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심리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에 관한 지식의 이해도를 평가하되, 핵심 개념과 원리의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 수준 및 적용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매 차시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취기준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수업 중의 형성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목표를 다시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인 지필 시험으로 일차적으로 심리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수준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아가 학생들이 습득한 개념과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반성적 보고서, 역할극 참여, 토론 참여, 상상적 시나리오 작성, 체험 활동 참여, 조별 활동 프로젝트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다)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과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의 차이점을 평가할 경우, 이 대비되는 특성의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인간의 심리적 현상 중에는 ‘긍정적 - 부정적’이라는 하나의 척도 상에서 이해되는 것이 많이 있다.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심리적 현상 역시 ‘긍정적 - 부정적’이라는 하나의 척도 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평가의 초점은 이 ‘긍정적 - 부정적’ 현상을 단순히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며, 그 차이로 인해 인감은 심리와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 습득한 개념과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어, 문제해결력과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를 실천해야 한다.

심리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들의 습득과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과 원리들을 학생 자신

이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시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학습한 심리학의 개념과 원리를 다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마) 자신 및 동료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가 실천되어야 한다.

‘심리학’ 과목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토대로,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과 건강한 생활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태도나 가치관의 습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필평가보다는 학생들의 활동과 체험 중심의 수행평가나 학생 행동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을 통한 평가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작문, 독후감, 토론이나 소집단 학습활동에서의 태도 등을 확인하여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성숙 정도를 평가한다.

(바) ‘심리학’의 평가 상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치게 학문적 수준에서의 평가 방법은 지양하고,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통해 각 성취기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심리학이 여러 학문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융합 내지는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제시하는 사례들이 속해 있는 특정 분야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초점은 심리학이 과학적 학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영역에 따라서는 학습 분량이 많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의 범위, 문항 형식 등을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갈등, 학교 폭력, 따돌림, 부적응 등 일부 내용의 경우 부정적이거나 실패한 사례를 평가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문항이 학생들의 이해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부정적인 특성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 방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학

1. 성격

교육학 과목은 배우고 가르치는 활동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에 기초한 교과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교양교과로서 교육학 과목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 현상으로서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실제적인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의 이해와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필요한 ‘교육학적’ 시야와 안목을 넓혀 교양인을 길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학 교과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배움과 가르침의 원리를 익혀, 미래의 평생 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 및 가치를 길러줄 수 있다.

교육학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다원적인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요구되는 가르침과 배움의 다양한 양태에 대해 탐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 한 인간이 자신의 생애 설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미래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교육학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습하고, 타인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또 타인으로부터 잘 배울 수 있는 전략과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학 과목은 ‘교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전인교육의 원리를 바탕으로 생애에 걸쳐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과목이다. 또한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 문제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우리사회의 교육 문제를 주체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교과이다.

교육학 과목은 교육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이러

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교육학적 사고력 또는 교육적 관점에서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현상과 실천 및 자신의 삶을 비판적이고 문제제기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비판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감 역량 등 고단계 사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교육학 과목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각,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 스스로 배우며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2. 목표

교육학 과목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배움과 가르침의 원리와 방법을 익혀, 미래의 평생 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학적 지식, 사고 능력 및 태도, 가치를 길러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에 교육학 과목은 교육과 자아의 실현, 교육과 사회화와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교육학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며, 학습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과 생애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과 태도를 바탕으로 당대의 시민 혹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이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교육법적 이념인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일이며, 그것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누구든지 소외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교육학 과목을 통해 인간은 왜 배우고 가르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인간의 학습은 자아실현에 가치를 두기도 하고 또 사회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며, 배우는 활동은 어떠한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해 왔는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교육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목적을 이해하고 탐구하며, 왜 전인교육과 자아실현이 교육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학 과목은 교육현상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력과 교육학적 사고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습 매체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과 학습 전략을 파악하여 알맞게 구사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타인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한편, 학생들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글로벌화, 다문화, 정보화, 양극화, 인구구조의 변화 등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인식하고, 미래의 평생 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적 삶과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교육의 의미, 가치, 그리고 그 목적을 살펴보고 이해하며, 왜 전인교육과 자아실현이 교육에서 중요한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둘째, 삶의 구체적 장면과 제도 속에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탐구하고 교육현상과 실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심미적 측면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교수학습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학습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동시에 타인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넷째,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인식하고, 미래의 평생 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체적 사고역량과 문제해결 역량을 기른다.

3. 내용의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교육의 목적과 가치	교육을 통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잘 사는가? 교육과 행복은 필연적 관계가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던 자 신의 신념과 가치 뒤집어 보기(성찰능력)
	교육과 자아실현/ 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육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구속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관찰을 통해 교육의 모습 찾기(원리 이해)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	지식교육을 왜 하는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은 하나인가, 별개인가? 교육은 학생이 '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학생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관찰을 통해 교육의 모습 찾기(원리 이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교의 출현과 발달	학교는 왜, 어떻게 출현했는가? 학교제도는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제도의 역사적 발달 이해 교육문제의 탐구 문제해결력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근대 공교육의 성과와 의미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공교육제도의 발달이 오늘날 삶에 미친 영향과 의미는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학습 현상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실생활에서 다양한 학습방법 적용 및 의사소통 능력
	한국의 교육문제와 해결방향	한국에서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가 당면한 교육문제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래속에서의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학습의 원리와 방법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왜 배우는가? 학습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습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문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합당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교수의 원리와 방법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왜 가르치는가? 교수(수업)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효과적인 교수(수업)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가?	
	미래사회와 교육	급변하는 기술문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무엇인가? 미래 사회에 등장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이에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나?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해야만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문제상황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합당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평생학습 사회	평생학습 사회는 무엇인가? 평생학습 사회에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만 하나?	

(2) 성취기준

① 영역 1: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일상과 제도적 삶 속에 어떤 교육적 현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왜 인간은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 임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본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다양한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고, 특히 교육의 사회화 목적과 자아실현으로서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다.

- ㉠ 교육의 목적과 가치, 전인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한다.
- ㉡ 잘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을 분석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 ㉢ 사회화로서의 교육과 자아실현으로서의 교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한다.
- ㉣ 교육이 현재의 나의 모습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 삶 속에서 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기른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사회화와 자아실현의 교육목적상 차이를 이해하고, 이 두 개념의 충돌과 상보적인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의 다양성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한국사회에서 전인교육을 방해하는 조건에 대해 성찰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④ 교육의 목적, 자아실현, 사회화 등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요소 : 교육의 목적, 사회화, 전인교육, 자아실현

(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일상적 삶과 제도적 삶 속에서 발견해보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추상적 개념과 구체적 사례를 연계시킬 수 있다.
- ② 자서전, 신문, 소설, 영화 및 가족, 친구, 이웃 등 생활 주변에서 교육이 실현되는 다양한 모습을 찾아보고, 그 목적과 기능을 탐구할 수 있다.
- ③ 자아실현의 권리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탐구해 본다.

〈평가〉

- ① 교육의 다양한 목적, 사회화, 전인교육 등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② 일상적 삶과 제도 속에서 발생하는 교육현상을 관찰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그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 ③ 한국의 현실에서 전인교육이 경시되는 풍토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성찰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한다.

④ 영역 2: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의 양태와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해 알고, 그 변화의 주요 동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공교육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 교육적 현실이 있다면,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탐구한다.

- ⑦ 학교는 왜,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대해 이해한다.
- ⑧ 학교제도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에 대해 이해한다.

- ④ 근대 공교육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분석 한다.
- ⑤ 한국에서 공교육의 형성과 전개과정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평가한다.
- ⑥ 한국사회가 당면한 교육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 ⑦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본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학교의 출현 과정을 알아보고, 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근대 공교육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 ③ 한국 공교육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④ 공교육과 평등, 인간의 존엄성, 헌법적 권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공교육과 의무교육 등 공교육 관련 개념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 학습요소 : 학교의 출현 과정, 근대 공교육, 의무교육, 교육문제, 교육과 평등

(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한국의 현대 공교육의 역사를 가족(조부모, 부모 등)을 통해 파악하고,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 교육사적 흐름과 비교해 본다.
- ②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교육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 ③ 공교육을 둘러싸고 오늘날 어떠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을 모색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평가〉

- ① 공교육의 발생과 사회사적 배경을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② 공교육의 발전이 현재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 ③ 공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헌법이나 교육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찾아내는 능력에 대해 평가한다.
- ④ 영역 3: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학습과 교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학습과 교수 전략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효과적인 교수 전략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 ⑦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한다.
- ⑧ 학습을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본다.
- ⑨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이해한다.
- ⑩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이해한다.
- ⑪ 효과적인 교수자의 특징을 알고, 교수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 ① 교수, 학습 관련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 ②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자신의 학습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 ③ 주어진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가르치는 방법을 이해한다.
- ④ 다양한 교수, 학습의 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 학습요소 : 교수, 학습, 학습전략,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다양한 학습맥락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수방법들을 이해하는 활동들을 한다.
- ② 학습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태도와 전략)을 이해하고, 보다 구성적이고 심층적인 학습을 허용하는 방법들을 적용해보도록 한다.
- ③ 자신의 학습습관, 재능, 소질, 흥미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기이해 활동을 한다.

〈평가〉

- ① 학습과 교수의 주요 전략이 지니는 핵심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②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스타일,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게 함으로써 초인지 지식이 있는지 평가한다.
- ④ 영역 4: 미래 속에서의 교육의 모습은 무엇인가?

사회의 변동과 미래사회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한다. 평생학습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평생학습 사회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를 기른다.

- ⑦ 급변하는 기술문명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 ⑧ 미래 사회에 등장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이에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그 대안을 모색한다.
- ⑨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지 탐구한다.
- ⑩ 평생학습 사회의 개념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한다.
- ⑪ 평생학습 사회에서 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 ① 미래사회의 변화상을 그려볼 수 있다.
- ② 평생학습사회에서 주어진 문제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 ③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다.

- 학습요소 : 평생학습사회, 성인학습자의 특징, 사회변동과 교육

(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 ① 미래 사회의 변화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보도록 한다.
- ②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미래의 평생학습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타율적이고 지시적인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체적으로 기획,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평가〉

- ①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의 다양한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② 평생학습사회의 특징을 파악하고, 평생학습자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 평가한다.
- ③ 미래 사회에 등장하는 위험 요소를 찾아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탐구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4.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 · 학습 방향

교육학 교과의 교육목표는 시간과 공간에 따른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와 방법을 익혀, 미래의 평생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학 교사는 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다양한 관점 및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교육학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며, 학습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과 생애를 능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 고차적 사고력 신장

교육학 교과는 암기, 분류, 열거, 구분 등과 같이 낮은 수준의 사고력을 뛰어 넘어, 적용, 공감, 비판적 사고력, 초인지, 창의력 등 높은 수준의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교육학 이론 영역에서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을 일상과 제도적 삶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문제해결 역량

학생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와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를 갖도록 한다.

(다) 교육과 ‘좋은’ 삶과의 관련성 인식

학생들이 학습과 교수에 관련된 다양한 능력과 태도를 길러, 당대의 시민 혹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교육하고 이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은 교육법적 이념인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며, 누구든지 소외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와 교육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활동을 한다.

(라)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의 활용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학생들은 신문 · 텔레비전 · 인터넷 · 영화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삶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형태를 확인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교육관을 탐구할 수 있다.

(마) 자기주도적 학습자 되기

미래 사회의 교육에서는 타율적이고 지시적인 교육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주체적으로 기획, 설계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과 자세가 요구된다. 이에 학생이 교수학습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동시에 타인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활동을 한다.

(3) 유의 사항

- (가) 교육학 교과가 지나치게 교육학 이론의 전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대신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교과의 원리가 제대로 파악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교육사를 편년체적으로 교수하기 보다는 근대 공교육의 발생과 그 의미에 보다 상대적인 강조점을 두고 지도한다.
- (다) 교육학 이론의 암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맥락과 딜레마 상황에서 그 이론이 가지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라) 강의 위주의 직접교수를 포함하되, 가급적 협력학습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전면적으로 제공한다.

나. 평가 방향

교육학 교과에서의 평가는 교과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교사들은 교육학 교과의 목표가 교육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하고, 배움과 가르침의 원리와 방법을 익혀, 미래의 평생학습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학적 사고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학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육학 기초 개념들과 원리들을 익혔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위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 고차적 사고능력이 발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학습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과 생애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가) 지식과 개념 습득에 대한 평가

교육학에서 중시되는 기본 지식과 개념을 학생들이 잘 습득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나) 적용능력에 대한 평가

교육학 이론과 개념을 실제적 삶과 제도의 다양한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학교에서 지켜지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교육학 원리는 무엇인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다) 고차적 사고력 평가

공감, 비판적 사고력, 초인지, 창의력 등 높은 수준의 사고력 지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교육학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평가한다.

(라) 가치 · 태도의 평가

학생들이 학습 주체로서 자신의 교육과 생애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를 수행한다.

(3) 유의 사항

- (가) 지식, 탐구, 실천 영역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게 종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 (나) 객관식, 서술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평가전략을 적용한다.

종교학

1. 성격

종교학 과목은 종교와 연관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이러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는 종교에 관한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뿐 아니라 자발적인 실천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각 지역에서는 자연적·문화적 환경(성별과 젠더, 민족, 문화, 이데올로기 등)에 따라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 수단 등의 발달과 세계화 추세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다문화사회가 조성되면서 종교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다종교 상황에서는 상호 공존의 태도가 중시되지만 때때로 공동체 내, 종교와 종교 사이, 국가와 종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종교의 유무와 종류에 따른 상이한 입장들이 종종 갈등을 빚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간과 종교의 관계, 다양한 종교공동체의 문화, 사회와 종교의 관계, 종교와 윤리, 종교와 사회 정의, 종교 간 차이와 차별의 구분 등 여러 문제를 다각도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실천 할 수 있는 성찰적 안목과 태도가 요청되고 있다. 이런 역량은 특히 종교 갈등의 가능성에 내재된 사회일수록 더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학 과목에서는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종교 문해 능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종교·다문화 감수성 또는 심미적·감성 능력(타인의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종교 문해 능력’은 다양한 종교 현상에 관해 단순한 기초 문해 능력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그 맥락과 의미를 자각할 수 있는 비판적 문해(critical literacy) 능력까지 포함한 역량이다. 이 역량은 다종교·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둘째, ‘비판적 성찰 능력’은 다양한 종교 현상에 관해 다각도로 질문하고 다층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역량으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역량에는 종교에 관한 자신

과 타인의 전제 또는 가정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은 다양한 종교에 관해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종교와 타인의 종교 경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종교인을 배려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한다. 이 역량은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상호 공존이나 협력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

넷째,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은 여러 종교 현상에 대해 상호 공존, 배려, 편견과 차별 해소 등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요청되는 가치들과 관련하여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다. 특정한 종교 현상을 다종교·다문화 상황에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다종교·다문화사회의 구성원에게 요청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 필요하다.

다섯째,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은 여러 종교의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 사회적·문화적 실천, 그리고 주요 종교인의 사례를 토대로 무종교인과 종교인, 소속 종교와 다른 종교,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다.

2. 목표

‘종교학’의 총괄목표는 종교와 연관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생활 등을 토대로 종교와 인간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둔다. 이러한 총괄 목표에 따른 세부 목표는 다음의 여섯 가지이다.

첫째, 종교가 인간에게 주는 의미, 종교의 역할, 종교의 자유 등을 핵심으로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둘째, 교리·의례·조직 등을 핵심으로 종교현상의 구조를 이해한다.

셋째, 종교의 인간관, 역사관, 자연관 등을 핵심으로 종교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넷째, 세계 종교와 한국 종교의 역사문화적 특징, 종교 관련 문화유산을 핵심으로 종교사의 흐름을 이해한다.

다섯째, 종교간 차이와 대화, 종교와 젠더·인권, 종교와 생명·과학, 종교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핵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주요 문제를 이해한다.

여섯째, 개별 종교들의 교리와 실천규범, 사회·문화적 실천,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핵심으로 종교의 윤리적 태도를 이해한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인간과 종교	종교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는 문제 해결의 주요 방식이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 여러 의미를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의 의미와 심리적·사회적 역할, 종교의 자유권 설명하기 종교 정의와 통념을 비평하기
	종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 정의에는 개인·사회에 대한 종교의 여러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와 통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학습자를 포함한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정교분리와 교육-종교의 분리는 종교의 자유 보장과 연관되어 있다. 종교 통념에는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종교현상의 이해	경전과 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전은 역사적 논의의 결과물이며, 교리의 토대가 된다. 교리에는 현재의 진단과 미래의 방향이 담겨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를 교리, 의례, 조직 차원에서 비교·설명하기
	종교 의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는 의례의 여러 기능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유지한다. 	
	종교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각기 다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종교의 세계관	종교의 인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종교는 특수한 구도와 개념으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의 인간관·역사관·자연관을 비교하기
	종교의 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종교는 특수한 구도와 개념으로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종교의 자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종교는 특수한 구도와 개념으로 자연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와 한국의 종교	세계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교·도교·불교·힌두교 등에는 역사문화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스도교·이슬람교·유대교에는 역사·문화적인 유사성과 차이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종교의 역사·문화적 특징을 비교하고, 여러 문화 유산과 관련시켜 설명하기
	한국의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다양한 종교들은 역사·문화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에는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종교 관련 문화 유산이 있다. 한국에는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는 종교 관련 문화 유산이 있다. 	
현대 사회의 종교적 문제	종교의 차이와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간 대화가 중시되고 있다. 분류법에 따라 종교적 차이나 종교에 대한 태도의 설명이 달라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적 차이나 종교에 대한 태도에 전제된 분류법을 파악하기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교적·과학적 접근에는 차이와 연결 고리가 있다.
	종교와 젠더·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가운데 종교의 자유권이 사회 이슈가 되는 상황을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종교가 종종 남녀 차별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종교와 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마다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종교적·과학적 접근에는 차이와 연결 고리가 있다. 	
	종교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의 여러 활동은 다문화사회를 향한 주요 통로가 되고 있고, 다문화사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다문화사회	<p>회에서는 종교에 다양한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의 정책에서는 종교 차별 금지뿐 아니라 종교간 평등과 소수종교의 배려가 요청되고 있다.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은 다문화사회의 종교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종교 문제를 인권 감수성, 젠더 평등,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기
개별 종교들 의 이해	주요 교리와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종교들은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을 가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학 사례 연구 차원에서 개별 종교들의 교리·규범·활동을 설명하기
	사회·문화적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종교들은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교인의 삶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에는 자신과 타인의 삶, 사회, 다른 종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태도가 담겨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인들의 사례에 담긴 윤리적 태도를 설명하기

나. 성취기준

(1) 영역1 : 인간과 종교

- 종교의 다양한 의미와 역할, 종교의 자유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인간과 종교의 관련성을 이해한다.

- 종교의 의미

-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종교를 이해한다.
- 인간이 종교를 통해 여러 의미를 얻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한다.

- 종교의 역할

- 다양한 종교 정의를 통해 종교의 심리적·사회적 역할을 이해한다.

- 종교의 자유

- 종교의 자유권이 현대 사회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임을 이해한다.
- 정교일치 또는 정교분리, 교육과 종교의 분리가 제도적으로 종교의 자유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이해한다.
- 종교의 여러 통념을 종교의 자유 위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인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종교를 만난다. 특히 삶의 의미나 사후세계 등의 문제 상황에서 종교적 확신이 해소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종교적 확신이 강할수록 종교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런 과정이 담긴 사례들을 분석하면 인간에게 종교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② 연구자마다 종교 정의는 다양하다. 종교 정의가 주로 보편적이 아니라 환경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조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종교 정의에는 종교의 다양한 역할이 담겨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종교 정의를 분석하면 특정 맥락에서 종교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해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국가는 제도적으로 종교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정교일치 또는 정교분리, 교육과 종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 등이 그에 해당한다. 세계적으로는, 특히 내면적 자유와 함께 ‘종교 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외면적 자유로 구성된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규정과 경향을 탐색하면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가 왜 필요한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 ④ 종교에 관해서는 여러 통념이 있다. 종교를 사이비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로 구분하는 통념, 종교를 비과학적 또는 비논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통념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런 통념들을 분석하면 여러 오류를 발견할 수 있고, 게다가 이런 통념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요소

종교의 의미, 종교 정의, 종교의 심리적·사회적 역할, 정교분리, 교육과 종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 종교 통념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종교 일반에 대한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특정 종교 중심의 사례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 사례를 제시하여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폭넓게 학습한다.
- ② 종교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주지시키되, 종교의 자유에 대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비판적 성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를 충분히 제공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종교의 의미와 역할, 종교의 자유에 관해 학습자가 관련 사례를 적절한 수준에서 수집·분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평가 대상인 학습자의 수집·분석 사례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영역2 : 종교현상의 이해

- 종교현상의 주요 내용을 경전과 교리, 의례, 공동체 조직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한다.

• 경전과 교리

- ⑦ 사서삼경, 불경, 도덕경, 성경, 쿠란 등 경전의 형성 과정과 주요 내용을 이해한다.
- ⑨ 현재 진단과 미래 지향의 틀로 종교의 핵심 교리를 이해한다.

• 종교 의례

- ⑦ 제사, 법회, 미사, 예배, 굿 같은 종교 의례의 진행 과정과 의미를 이해한다.
- ⑨ 통과 의례, 치병 의례, 계절 의례, 수련 의례 등의 특성을 이해한다.
- ⑩ 주술과 축제의 특성을 이해한다.

• 종교 공동체

- ⑦ 가족, 승가(상가), 교회(에클레시아), 움마, 단골 등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 ⑨ 성직자, 수행자(수도자), 일반 신도의 역할 구분과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
- ⑩ 종교 공동체의 다양한 책무를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종교에는 대체로 경전이 있다. 이 경전들은 역사적으로 취사선택의 수집 과정, 전승과 번역과 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다. 경전의 주요 내용은 교리화되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의 주요한 이해 통로로서, 경전의 변화 과정, 경전과 교리의 연관성, 교리에 근거한 현재의 진단과 미래의 설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② 종교는 여러 주기에 맞추어 다양한 의례를 진행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의례들은 나름의 의미 부여를 통해 종교 공동체와 문화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통로로서 주요 의례의 진행 과정과 의미와 특성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③ 종교는 다양한 맥락에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이다. 그리고 이런 결사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여러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별 공동체의 문화와 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조직 문화와 책무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요소

종교 경전과 주요 교리, 의례의 개념·종류·과정·특성, 종교공동체의 개념, 종교 조직의 특성과 책무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종교현상 일반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이므로 특정 종교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폭넓게 학습한다.
② 교수·학습 내용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종교별 경전의 특징과 핵심 교리, 의례, 공동체 조직의 유사성과 차이를 서술하고 발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특정 종교가 아니라 종교현상 일반에 대한 문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한다.

(3) 영역3 : 종교의 세계관

- 종교의 인간관, 역사관, 자연관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종교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 종교의 인간관

- ㉠ 고통, 선과 악, 삶과 죽음, 운명과 자유 등 인생의 근본 문제들을 이해한다.
㉡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종교의 견해를 이해한다.
㉢ 종교적 인간관이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종합되고 체계화되는지를 이해한다.

• 종교의 역사관

- ㉠ 종교들의 역사관, 종말론, 우주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종교들의 생사관과 구원관 및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종교의 자연관

㉠ 종교들의 자연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 종교들의 생명관과 그 특징을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① 인간은 종종 고통, 선과 악, 삶과 죽음, 운명과 자유 등 존재 자체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직면 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특정한 구도와 개념으로 이런 문제 상황뿐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설명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은 역사적으로 종합되고 체계화된 사유와 경험의 산물이며,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된다.

② 대부분의 종교는 특정한 구도와 개념들을 사용해서 시·공간의 탄생이나 흐름을 설명한다. 이런 설명은 역사를 설명하는 관점으로 이어지고, 역사관은 종말관, 우주관, 인간의 생사관이나 구원관 등으로 이어져 종교적 세계관이 형성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공간에 관한 논의가 담긴 역사관을 중심으로 종교들의 세계관을 탐색하고 그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종교는 종종 생태계 파괴 현상에 대해 특정한 구도와 개념들을 사용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종교가 생태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생태계의 파괴나 보존 현상이 종교의 자연관·생명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종교의 자연관과 생명관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학습 요소

종교의 인간관, 역사관, 종말론, 우주관, 생사관, 구원관, 자연관, 생명관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① 종교적 세계관의 유사성과 차이가 발생하는 맥락, 특히 유사성뿐 아니라 차이가 주는 여러 효과를 설명·논의한다.

② 교수·학습 내용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나 신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① 종교적 세계관의 유사성과 차이를 서술하고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문해 능력에 주안점을 두되, 종교적 세계관의 역사적 맥락과 여러 효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4) 영역4 : 세계와 한국의 종교

- 세계 종교와 한국 종교의 역사, 그리고 종교 관련 문화유산을 핵심 내용으로 삼아 종교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 세계의 종교

- ㉠ 유교, 불교, 도교, 힌두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
㉡ 그리스도교(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등)와 이슬람교(수니파, 시아파, 수피즘 등), 유대교 등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한다.

• 한국의 종교

- ㉠ 하늘신앙, 무속신앙, 풍수신앙, 조상숭배 등 고유 종교의 특성과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유교와 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불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그리스도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신종교(동학-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와 이슬람교의 한국사적 흐름과 특성, 그리고 현대적 의의를 이해한다.

•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 ㉠ 세계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 한국 종교가 남긴 다양한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세계 여러 나라에는 유교,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이 비교적 오랜 역사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들 종교의 특징은 동양종교와 서양종교, 유일신교와 다신교 등 어떤 분류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테라바다, 대승, 금강승), 그리스도교(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슬람교(수니파, 시아파, 수피즘) 등처럼, 동일 범주에 속한 종교도 세

문화하면 특징이 달라진다. 그럼에도, 이들 종교의 역사와 특징은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어, 탐색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 ② 단순히 시기상으로 분절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하늘신앙, 무속신앙, 풍수신앙, 조상숭배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점차 유교, 불교, 도교, 그리스도교나 이슬람교가 유입되고, 특히 근·현대 시기에 동학·천도교, 대종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등이 등장하면서 다종교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종교현상이나 종교 공동체에는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 담겨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 종교의 역사적 흐름과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③ 세계 여러 나라에는 여러 종교가 남긴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자취가 있다. 이런 자취는 유적·유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종교의 역사적·문화적 자취에는 종교의 주요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따라서 종교와 관련된 여러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탐색하면, 종교의 주요 역사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학습 요소

세계 종교, 한국 종교, 역사적 흐름과 특징,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 종교 분류법(동양종교, 서양종교, 지역종교, 고유종교, 근현대종교 등), 세계 종교의 문화유산, 한국 종교의 문화유산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종교의 종류가 적지 않으므로 개별 종교에 치우치기보다 분류법을 활용하여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② 교수·학습 내용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
- ③ 종교의 특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류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유대교, 힌두교 등도 단순히 ‘지역 종교’로만 국한시켜 설명하지 않도록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분류법에 따른 종교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서술하고 발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② 종교의 문화유산의 유형과 특징을 중심으로 종교의 역사적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세계의 종교와 한국의 종교에 대한 문해 능력과 관련하여, 여러 분류법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들을 지적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5) 영역5 : 현대 사회의 종교적 문제

- 종교의 차이와 대화, 종교와 젠더·인권, 종교와 생명·과학, 종교와 다문화사회와의 관계를 핵심 내용을 삼아 현대 사회에서 종교의 주요 문제를 이해한다.

• 종교의 차이와 대화

- ① 종교들의 차이에 대한 여러 태도와 그 효과를 이해한다.
- ② 종교의 차이와 종교로 인한 차별의 구분을 이해한다.
- ③ 공존을 위해 종교간 대화의 필요성과 방식을 이해한다.

• 종교와 젠더·인권

- ①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종교들의 현실을 이해한다.
- ②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종교들의 현실을 이해한다.

• 종교와 생명·과학

- ①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 여러 종교의 해법을 이해한다.
- ②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한 종교적·과학적 접근의 차이를 이해한다.

• 종교와 다문화사회

- ① 다문화사회의 진입과 개별 종교들의 활동 사이에 있는 연관성을 이해한다.
- ②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종교들에 요청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 ③ 종교 차별 금지, 종교간 평등, 소수종교의 배려 등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국가에 요구하는 종교 정책의 특징을 이해한다.
- ④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에서 다문화사회의 종교 현실을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여러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시대·지역 등의 차이가 담긴 문화가 있다. 이런 차이는 종종 종교적 신념에 의해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호 공존을 위해서는 충분한 상호 이해와 대화, 종교의 차이와 종교의 차별을 구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② 종교는 젠더 평등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젠더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인권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인권 유린의 장이 되기도 한다. 종교의 자유 가운데 종교교육의 자유와 신앙의 자

유 사이의 관계가 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젠더의 고착화는 남녀 차별, 인권 유린은 인간의 존엄성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젠더 평등과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종교의 현실을 읽을 수 있는 성찰적 안목이 필요하다.

- ③ 현대 사회에는 종종 낙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생명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종교는 이러한 생명과 생태계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면서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종교계가 제시한 여러 해법은 종종 과학적 해법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위해 생명과 생태계 문제가 중요한 만큼, 종교계가 제시하는 해법의 내용, 그리고 문제에 대한 종교적 접근과 과학적 접근의 차이와 연결 고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④ 종교는 사회 질서를 옹호하거나 사회 변혁을 초래하거나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기능은 종교가 어떤 사회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종교·다문화사회의 경우에는 종교간 배타적 태도가 강할수록 종교가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는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종교간 대화와 관용, 배려, 정의(justice) 구현과 인정 등의 태도를 요청하게 된다. 정책적으로도 종교 차별 금지, 종교간 평등, 소수 종교에 대한 배려 등이 중시되고 있다.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요청되는 태도를 갖추려면 여러 종교 문제를 다종교·다문화 상황에 놓고 다각도로 사유할 수 있는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이 필요하다.

- 학습 요소

종교간 갈등과 대화, 차이와 차별, 종교와 젠더, 종교와 인권, 종교의 자유(종교교육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인권 감수성, 종교와 생명, 종교와 과학, 종교와 다문화사회, 다종교·다문화 감수성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차이와 차별의 구분, 젠더와 인권 감수성,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의 관점이 다종교·다문화사회에서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 ② 현대 사회의 종교 문제임을 고려하여 근현대의 다양한 사례를 자료로 활용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이 되지 않게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여러 종교 사례에 차이와 차별의 구분, 젠더와 인권 감수성, 다종교·다문화 감수성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특정 종교 현상이 아니라 종교 현상 일반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안목과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6) 영역6 : 개별종교들의 이해

- 종교학의 사례 연구 차원에서 개별 종교들의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 사회·문화적 실천, 그리고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에 담긴 윤리적 태도를 이해한다.

•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

- ㉠ 개별 종교들의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을 이해한다.
㉡ 개별 종교들의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에 담긴 여러 시사점을 이해한다.

• 사회·문화적 실천

- ㉠ 개별 종교들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의 내용(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외교, 교육, 문화예술 등)을 이해한다.
㉡ 개별 종교들의 사회적·문화적 실천이 우리 사회에 미친 여러 영향을 이해한다.

• 종교인의 삶과 태도

- ㉠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 사회, 다른 종교 등에 대한 여러 윤리적 태도를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개별 종교들은 교리를 토대로 현실을 진단하고 이상 세계를 설정한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의 실천규범을 강조한다. 이러한 개별 종교들의 주요 교리와 실천규범에는 해당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다.
② 개별 종교들은 시민운동의 참여뿐 아니라 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외교,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문화적 활동은 종교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위한 자발적 실천이기도 하고, 국가나 지역 사회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사회적·문화적 실천이 지역사회나 국가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그 실천의 내용과 영향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③ 개별 종교들은 역사적으로 인간, 다른 종교, 국가, 민족, 사회 등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별 종교들에 속한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개별 종교들에 속한 종교인들의 삶과 이야기에 담긴 여러 태도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인간이 지녀야 할 윤리적 태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학습 요소

종교들의 이상과 윤리, 시민운동, 영역별 활동(시민운동, 복지, 언론, 민간외교, 교육, 문화예술 등), 종교인들의 삶과 태도,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태도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종교학 일반의 내용을 심화하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종교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개별 종교들의 이상과 윤리, 사회적·문화적 실천, 태도를 적절하게 연결시켜 일관된 비평적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비평적 스토리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학습자의 주관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평가한다.

4.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 · 학습 방향

1. 교재 사용: 수업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 자료를 활용한다.

2. 설명식 교수·학습 방법

- 가. 강의법: 선행조직자 이론 등을 활용하여 종교 관련 학습 주제의 핵심 개념과 하위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이해력을 높인다.

- 나. 대화식 수업: ARCS(Attention, Relevance, Confidence, Satisfaction) 등의 동기유발 이론을 토대로 종교학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대화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학습 주제와 관련된 주요 질문을 미리 준비한다.

3. 탐구·발견식 교수·학습 방법

- 가. 세미나 수업: 학습자가 흥미를 가진 종교 관련 학습 주제를 스스로 심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준비하여 진행하는 세미나 수업 방식을 활용한다.
- 나. 문제해결·발견·탐구·구안학습: 학습자가 종교 관련 학습 주제에 대한 현안을 스스로 탐색하고 자료를 찾아 논리적 차원에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

4. 기타

- 가. 교수·학습 방법의 결합: 교수·학습 방법은 수업 상황과 주제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의식·토론식의 경우, 학습 주제 관련 사례를 간략히 안내한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안목·논리·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여, 메시지를 도출한다.
- 나. 현지조사·시청각 교육의 가미: 학습동기와 집중도를 높이고, 다양한 종교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교 영상물을 활용하고, 관련 종교 시설을 답사한다.
- 다.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종교로 인한 편견과 배타적 발언이 없도록 유의한다.

나. 평가 방향

- 가. 객관식 위주의 평가 방식을 지향하고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논술식을 활용하며,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태도를 평가한다.
- 나. 학생에 대한 관찰과 면접, 논술과 독후감 등의 과제물 검사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 의지를 평가한다.
- 다. 지필 검사 이외에도 종교 관련 자료나 사례의 수집과 분석, 논증에 대한 비판과 토론, 발표 능력을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
- 라. 감성, 지적 능력, 의지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수업에 대한 느낌, 종교 문제의 원인 파악과 대안 제시, 바람직한 종교관과 인생관에 대한 결심 등 정의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 마. 종교에 관한 안목과 태도의 변화는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학기별 또는 주제별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작성하게 하여 변화의 정도를 평가한다.
- 바. 학생이 스스로의 변화를 평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자체 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면접이나 관찰 등을 통해 평가하고 피드백을 준다.

철학

1. 성격

앎의 양과 질이 삶의 모양과 수준을 규정한다. 즉, ‘인간은 자신이 아는 만큼 산다.’는 명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학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철학함’의 근본 전제이다. 이 때 ‘앎’에는 일상적 상식이나 습관 또는 학교나 각종 매체에서 전달하는 지식, 정보, 기술, 의견,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기 존재의 지향점을 찾고자 자신에 대해 깨우쳐야 하는 ‘자기지식들(自己知識, self-knowledges)’이 반드시 포함된다.

철학함의 일차적 핵심은 모든 앎이 확고하게 자기지식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이 획득하는 각종 앎에서 그 ‘궁극적 근거’를 추적하여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앎의 ‘전체적 연관’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철학함은, 신체, 욕망, 감성, 정서, 나아가 이성에 걸친 인간 능력들을 총체적으로 발휘하여, 자기 삶에 던져진 문제에 관해 자기의 앎을 타인과 서로 이해시키면서 공유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정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통해 실천하는 인간적 활동이다.

이러한 철학적 앎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교육은 성인기를 앞둔 청소년들이 인간에 대한 통찰, 자신이 사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지식,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스스로 길러 자기 삶의 앎으로 만들도록 고무하고 격려하는, 교사와 학생의 공동-놀이(Zusammenspiel)이다. 철학함을 통하여 청소년은 개인적·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는 비판적 능력을 키우고 모든 문제 상황을 자유롭게 탐구하여 올바른 앎을 갖춘 한 개인으로 성숙하여 자기 삶의 주인이 됨과 동시에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시민이 된다. 이 점에서 고등학교 철학은 고등학생들에게 지금까지 과목별로 분산되었던 교과지식들의 근거와 자기 삶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자유로운 자아정체성과 시민적 연대의 관점에서 다른 이들의 삶의 의미들을 융합하여 행복하게 공동의 삶을 살아가는 역량을 키우는 자기 교육의 과정이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고등학교 철학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문제 사태의 인지 및 설정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논변 역량, 가치정립 역량, 그리고 타자와의 공감 및 연대 역량 등으로 이루어지는 철학함의 능력을 기초적으로 배양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문제 사태의 인지 및 설정 역량은 학습자가 공부와 생활에서 그 어떤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그 사태와 자기를 연관시키면서 나타나는 ‘문제상황’을 지각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조성하기도 하면서 그 뒤 이루어져야 할 문제의 극복과정을 위한 명확한 출발점을 마련하는 능력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역량은 인지된 문제상황과 연관된 문제사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원인연관을 설명하며, 그 근거를 해명하고, 참-거짓, 옳음-그름, 좋음-나쁨, 아름다움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자신의 문제의식에 적합한 결론을 주도적으로 도출하는 능력이다.

셋째, 의사소통 역량은 타자와 각자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역할을 교착시켜 가면서 상호이해를 추구하는 담화행위의 능력이다.

넷째, 논변 역량은 문제사태에 대해 타자와 더불어 ‘합리적 근거’를 추구하여, 원칙적으로, 관련자 모두가 찬동하는 합의점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가치정립 역량은 문제사태를 극복하는 대안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제시하여 자기 개인과 동료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추구할 지향점을 설정하는 능력이다.

여섯째, 타자와의 공감 및 연대 역량은 나와 더불어 문제사태를 극복할 타자들에 대하여 문제관련 범위 이외의 실존상태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인내하는 전인격적 이해의 범위를 부합시키는 능력이다.

2. 목표

고등학교 철학교육은 고등학생이 청소년으로서 자기 생활을 성찰하고 학생으로서 교과 공부를 통합적으로 숙달할 수 있도록 생활과 교과의 현안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파악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또한 논증과 토론 등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합당한 근거와 보편적 결론을 갖춘 자기주장으로 발전시키고 정립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아로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타자와 더불어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총괄 목표 아래 세부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생활과 교과에 관련된 문제를 ‘쟁점’으로 정립하고, 그 쟁점들이 관련 현안에서 궁극성을 가지는지 판단한다.

둘째, 쟁점문제에 대한 비판적·창의적·총체적 탐구 능력을 기른다. 이런 탐구능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절되는 세부능력들로 작동된다.

- 쟁점 관련 주장들의 내용과 개념에 대한 ‘의미를 이해’한다.
- 이해된 내용들을 ‘주장-근거’연관에 따라 논증적으로 재구성한다.
- 쟁점과 관련된 사태들의 정보와 지식을 ‘통합’하고 ‘맥락화’ 한다.

- ‘근본적 부정’을 통해 대안들을 ‘전면적·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 위의 결과를 ‘개념’으로서 명제화하고, ‘논증’으로 정리한다.
- 셋째, 논증적으로 정리된 결과를 자신의 ‘의견’으로 발언하고, 그 의견을 ‘논술’로 기술하며, 타자들과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만남을 조직’하고 ‘토론’으로 보편적 동의를 구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체득 한다.

3. 내용의 영역과 기준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철학 자아론	나의 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학교 공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배움과 사귐은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 배움이 인간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 문제 제기하기 • 반성적 분석 • 비판적 평가 • 논증 구성 • 대안 구상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의 나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는가? •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 것인가? • 내가 되고자 하는 나를 만들 힘이 나에게 있는가? 	
	철학하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은 자유의 방법과 경지를 일깨운다. • 자유로운 행동이란 신중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행동, 즉 철학적으로 판단된 행동이다. • 삶의 한계상황은 새로운 삶과 연결된다. 	
인간론	욕망과 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재를 몸이나 마음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가? •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적절한가? • 이성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개념’의 의미(내포와 외연) 파악 능력 • 정보와 지식의 ‘맥락화’ • 근본적 부정의 능력 • 통찰의 명제적 통합
	언어와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 너의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 언어가 가지는 폭력성은 어느 정도인가? 	
	생존과 실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살아남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 타인은 내 삶의 방해물인가, 자기실현의 조건인가? • 죽음은 삶의 끝인가? 	
세계론	물질과 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왜 물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 생명은 물질 현상인가 비물질 현상인가? • ‘나’는 물질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 문제 제기하기 • 비판적 예시와 근본적 부정
	타자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가치론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규범은 왜 필요한가?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의 조건은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의 맥락화 논증적 정리 만남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나간 과거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민족이 무엇이고, 왜 그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존엄성과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라도 왜 살려야 하는가? 인권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신념이나 관습은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옳지 않은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평화는 어떤 상태인가? ‘정의 없는 평화’나 ‘평화 없는 정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아름답지 않은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좋아할까? 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옳음과 아름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본적 문제 제기하기 반성적 분석 비판적 평가 논증 구성 대안의 창조적 구상 만남의 조직

(2) 성취기준

⑦ 영역 1 철학자아론: 철학하는 나

철학은 어떤 경우에도 철학하는 ‘나’가 철학해서 나온 결과임을 체득한다. 즉 철학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과 삶에서 나온 절실한 문제를 ‘나’의 철학함을 통해 획득한 결론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으로서 나’가 당면한 미성년으로서의 나의 삶과 교과 공부의 문제들을 자료로 하여,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인간 세계와 자기 미래의 삶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기 확신을 획득하도록 도전해 본다.

- ① 전형적인 ‘고등학생이자 청소년인 나’의 일상적 삶과 공부의 현실에서 ‘철학적 문제들을 발견’하는 모습을 시현해 보임으로써 ‘근본적 문제’와 마주하는 경험을 체득한다.
- ② 타자와 더불어 하는 삶의 조건 속에서 청소년으로서 ‘나의 삶’의 방해 조건과 자유의 조건을 성찰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방안을 모색해 본다.
- ③ 삶의 한계상황에서 ‘철학함’을 통해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깨우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공부라는 것이 학교 안에서는 지식의 일방적 습득에 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던 것을 깨치고 타자를 알아가면서 겪는 자기 능력의 성장 과정임을 깨닫는다.
- ② 이 과정에서 철학적 맑은 주관적 견해나 객관적 정보 또는 지식이 아니라 ‘세계와 자기 삶에 대해 적어도 자신에게는 궁극적으로 옳다고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된 반성적·비판적 맑’임을 알고, 철학적 맑과 다른 종류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체득한다.
- ③ 지금의 나는 아동기의 나와 비교하여 우선 육체적으로, 그리고 다음 정신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성장’했는지를 스스로 측정해 보면서 그때 자신이 성장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자술해 본다.
- ④ ‘나의 공부’를 주제로 철학적 탐구의 방법을 실제로 실행해 본다. 즉 현재의 공부는 나에게 감옥인가, 아니면 성취인가라는 논제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논증의 구성), 그 문제가 나에게 왜 ‘절실한가’를 가늠해 본다.(현안적 궁극성의 측정)
- ⑤ 공부의 직접적 목표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고 할 때 과연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지식에 대한 인식론적 기초의 도입), 무엇인가 알고 나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 비교하여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성찰해 본다.(맑의 실천적 의미)
- ⑥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에 대해 ‘나는 자유롭다.’는 주장과 ‘나는 자유롭지 않다.’는 두 주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자유롭다면 자유로운 이유, 그리고 자유롭지 않다면 자유롭지 않은 이유를 적시하면서 논술해 본다.
- ⑦ 혈족과 나, 학교와 나, 선생님과 나, 그리고 대한민국과 나, 한민족과 나, 우리의 외국과 나 등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나의 자유로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다.
- ⑧ ‘과연 나는 자유롭기를 원하는가?’라는 논제로 자유와 자기 삶의 조건에 대한 관계를 보는 자기 견해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본다.
- ⑨ ‘자유롭지 않으면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논제로 자유를 주제로 동서양의 고전적 텍스트들에서 제시된 각종 근거와 비교해 본다.

- 주요 학습 요소 : 공부, 성장, 나의 삶, 자유, 철학적 문제, 궁극적 문제, 논증 구성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공부라는 것이 성적 평가 위주의 학교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여 자기 성장을 위한 필수적 노력임을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철학적 문제를 철학의 학문적 자료가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 문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추상화시켜 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대면담론을 운영한다.

- ③ 학생들의 말이 아무리 하찮다 하더라도 철학적으로 정리된 논증명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표현 용의와 실현 : 일단 학생들이 쟁점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용의를 보이도록 분위기를 고취한다.
- ② 논증성 텍스트 작성 : 표현된 말이나 글을 논증적으로 얼마나 정리된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 ③ 상호주관적 협업의 의지와 능력 : 개인 의견과 아울러 집단 의견을 만들어내는 합의와 연대의 능력이 평가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평가의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고 오해될 그 어떤 수업 행태도 경계한다.
- ② 교사의 마음에 맞는 의견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위의 평가 방법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

④ 영역 2: 인간론. 인간의 삶과 활동

고등학교까지의 자기 생활과 교과 공부를 바탕으로 ‘나’가 그것인 ‘인간’의 삶이 진정한 자기 삶이 되기 위해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인간 조건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그 잠재력을 충만하게 실현할 수 있는 자기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 ① 인간됨을 구성하는 몸의 기반 위에서 욕망과 이성의 능력과 둘 사이의 적절한 관계를 설정한다.
- ② 자기의 사고와 타자와의 관계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성찰한다.
- ③ 내가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이 단지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하나의 자아로 실존하고 죽어서도 존재함이 지속되는 과정과 그 조건임을 탐색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세포에서부터 신체골격, 뇌신경계에 이르기까지 ‘나’의 몸을 크기순으로 ‘기관’별로 정리하면서

- 그 ‘기능’을 결부시켜 ‘나의 몸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서 ‘신체 부분’과 ‘정신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가르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결부시킬 수 있는지 분석해 본다.
- ② 나의 몸이 계속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면서, ‘욕망’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몸이나 마음 그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 ③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기능을 사고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사고를 성찰하면서 ‘사고가 이성적으로 발휘되는 양상들’을 분석해 본다.
 - 참/거짓의 판단
 - 타당성/부당성의 판단 (논리적 사고)
 - 일반적 공통성/특수한 차이성의 판단과 일반화 능력 (오성적 사고)
 - 옳음/그름의 판단 (규범적 사고)
 - 좋음/나쁨의 판단
 - 있는 것에서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 (목적, 아름다움)
 - ‘다른 것’과 ‘같은 뜻’을 소통하는 것 (소통적 이성)
 - ‘자기를 대상화’시켜 성찰하는 것
 - 자기로 하여금 일정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자기규제 하는 것(=의지)
 - 같은 이성존재를 이성존재로 알아보는 것
 - ④ 인간의 생각은 말이 오가는 과정에서 ‘세계’와 ‘인간 마음’을 ‘표현’하는 말의 ‘뜻(의미)’을 통해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는 세계와 타인에 대한 앎을 습득한다는 것을 문학, 과학, 역사의 예를 통해 확인한다.
 - ⑤ 인간은 ‘다른’ 인간과 말을 하면서 ‘서로 같은 뜻’을 통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같은 뜻을 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태, 즉 상호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서 확인한다.
 - ⑥ 인간은 ‘말하면서’ 서로 다른 인간과 ‘인간관계’로 이어진다. 이런 이어짐의 총체가 사회적 관계라고 했을 때, 사회적 관계에서 말이 하는 다양한 역할을 양상별로 분석해 본다.(기술, 설명, 논증과 설득, 계약과 약속, 연설, 선언, 고백과 참회, 유머, 문학 등)
 - ⑦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려면 환경세계 특히 지구상의 자연물을 변형시켜 인간의 필요에 적합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인간의 활동을 ‘노동’이라고 하고 노동을 통해 필요물이 나오는 과정을 ‘생산’이라고 했을 때, 노동-생산-인간생활의 체계가 변해온 과정과 그것이 인간 삶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시오.
 - ⑧ 노동의 상당부분을 ‘기술’이 대신하게 된 현대에 와서 인간 삶이 예전보다 ‘더 행복’해졌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하여 논술해 본다.
 - ⑨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즉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존하기 위해서 생존과 안전의 보장만으

로 충분한지를 성찰해 본다. 이 때 인간이 생존의 압박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을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실현이나 자기몰입의 상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 경우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가능성을 최고도로 발휘하여 스스로에게 기쁨과 성취감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예술, 체육을 비롯한 각종 문화 활동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

- ⑩ ‘남(타인)’은 ‘나’의 삶의 장애물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실현에 필수적이고도 운명적인 조건인가를 고찰하면서, 타인이 나의 삶의 장애 조건인 경우와 나의 삶의 실현 조건인 경우를 나누어 각기 그렇게 되는 원인과 이유를 살펴보고, 타인이 나의 삶의 장애요인이 되어 있을 경우 그 난관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 때 ‘정치’와 ‘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근본적이고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
- ⑪ ‘인간은 어차피 죽는다.’고 했을 때 ‘죽음’이란 과연 인간이 원치 않아도 따라붙게 되어 있는, 필연적이지만 부차적인 삶의 숙명인지, 아니면 삶의 자기완성으로 인간이 주체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긍정적 조건인지를 성찰해 본다. 이 경우,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런 존재자들의 상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그 다음 반대로, 상상적으로라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있는지를 가상해 보고, 인간이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 주요 학습 요소 : 인간, 몸/신체/육체, 욕망, 마음, 이성, 생존, 노동, 실존, 남/타자, 불멸성, 죽음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위의 학습요소에 나열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기능에 대한 추상적 개념들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포(內包)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관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오히려 전혀 추상적인 것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나 학생들이 이 개념들에 대해 갖는 일상적 선이해(先理解)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 ② 이런 학습요소들의 아주 일상적이고도 구체적인 선이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개념들 안에는 인간의 역사적·철학적 체험을 담은 다층적이고도 다양한 함의(含意)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용어(用語) 안에 다양한 개념적 함의들을 차례로 집어넣어 인간으로서의 자기자신이 현재의 자기보다 훨씬 넓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깨닫도록 한다.
- ③ 특히 ‘남/타자’ 개념과 ‘인간/사람’ 개념들이 지닌 고도의 추상성이 내 주변의 구체적인 개개인들과 항상 연관될 수 있도록 상기시킨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인간기능들에 대한 추상적 개념들을 학습자 개개인의 구체적이고도 일상적인 상태와 얼마나 명료하고도 경험적으로 연관시키는지 주목한다.
- ② 위의 개념들에 대한 자신의 선이해를 얼마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주시한다.
- ③ 이와 같은 선이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학적 경험에 함축된 개념들의 함의와 구체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노력에 주목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인간에 대한 기술이나 논술에서 학습자가 인간조건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일상적 선이해 그대로 일반화시킴으로써 ‘조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있는지 항상 예의주시한다.
- ② 위와 반대로 아주 일반화된 고급개념으로 모든 것을 추상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개념적으로 차단당하는 ‘실체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를 주목한다.

㊂ 영역 3: 세계론. 세계에 대한 앎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배운 교과 공부의 범위 안에서 인간이 사는 자연 세계, 사회 세계, 그리고 역사 세계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으며, 이런 세계상을 정립하는 인간 인식작용의 윤곽을 비판적으로 그려봄으로써 세계상(世界像)과 인간 삶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성찰할 정신적 기반을 마련한다.

- ① 우주, 자연, 생명에 이르는 물질의 다양한 존립방식과 비물질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자연과학적 탐구의 기초를 검토한다.
- ② 타자와의 다양한 공존관계 속에서 규범의 필요성과 자유의 가능성 그리고 삶의 한계를 다양하게 탐구한다.
- ③ 과거는 단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역사의 규정 조건을 아는 것이 자기이해와 자기실현의 기반이 됨을 성찰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고교 물리〉, 〈고교 화학〉, 〈고교 지구과학〉에서 제시하는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법칙에 따라 우주와 자연, 그리고 지구의 운동 및 변화의 법칙을 개괄한다.
- ② 동식물과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은 전적으로 물

질과 관련된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자.

- ③ 개체의 생명에 주목하는 생물학(biology)이 생명계와 환경을 포괄하는 생태학(ecology)으로 발전해야 할 ‘과학적’ 필연성을 논증적으로 정리한다.
- ④ 동서양의 전통 철학에서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가족, 자연, 공동체, 국가라는 결속체가 나타나는 과정을 그 원인, 기능, 규범의 측면에서 고찰한 고전적 텍스트들을 비교하고 분석한다. (유교의 『소학』, 『대학』,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등)
- ⑤ 현대 사회에서 ‘입헌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국가 권력이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시민생활을 위해 작용하는 원칙과 제도를 거시적으로 종합해 본다.
- ⑥ ‘민주주의’와 ‘시장’을 전제로 한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 국가, 경제,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된 근거와 그 제도화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본다.
- ⑦ 〈고교 한국사〉를 펼쳐놓고 우리가 왜 지금 시점에서 선사 시대 및 고조선에서 삼국시대, 신라·발해의 남북조 체제와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각기 다른 나라를 꾸러온 반만년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 ⑧ 여러 집단이 만들고 여러 왕조와 국가가 교체되어 온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똑같이 ‘한민족(韓民族)’의 역사라고 동일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⑨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에서 내가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다.

- 주요 학습 요소 : 세계, 물질, 우주, 생명, 생태, 자연, 공동체, 사회, 국가, 역사, 민족, 역사의 주체, 민주주의, 시민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이 영역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생들이 세계에 관해 배워온 표준 지식들, 즉 인간세계에 관한 국어, 사회, 역사 과목들의 사회과학적 지식들과 자연세계에 관한 물리, 화학, 생물, 지학 등의 자연과학적 지식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안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총정리한다는 마음 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 ② 이 영역에서는 세계의 각 분절부분들(우주-자연-사회)에 대해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서 선정하고 이 시대의 학문들이 밝혀낸 가장 표준적인 지식들을 투입하여 장차 학생들이 살아갈 인생에서 맞부딪칠 세상에 대한 가장 신뢰할 만한 준거상(準據像, reference picture)을 융합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므로 교사의 자체 역량이 전문성에서 부족할 경우 관련 교과의 교사들과 협조하여 협동학습을 진행할 것을 권유한다.
- ③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인 세계상에 근접하는 노력을 고취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식에는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일깨워 학생들이 탐구의 잠재력을 기동하도록 유도하는 학습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좋다.

록 일깨운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이 영역에 대해서는 절대 단순 선다형 문제가 아니라 각 과목의 교과서와 참고서 그리고 노트 까지 모두 펴놓은 채(open book test) 각 과목의 개념들을 적절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논술형 또는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② 이 영역 역시 그 어떤 정해진 정답을 적중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내린 결론에 대한 정당화의 과정을 주목한다.
- ③ 학교와 학습 여건이 허락하면 과목별 장기가 있는 학생들을 다양하게 둑어 협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객관적으로 정해진 세계상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의 평가에서도 새로운 발상에 대한 욕구를 억제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치명적으로 틀린 지식이 발견될 경우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논변을 진행시켜 자기각성의 능력이 재평가되도록 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 영역 4: 가치론. ‘더 나은’ 삶.

고등학교까지의 자기 생활과 교과 공부를 바탕으로 인간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구상하고 실현해야 할 근거를 다각적으로 탐구한다. 이 경우 인간은 단지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실존의 주체로서 인간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의미한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자기 발전과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체득한다.

- ① 한 인간의 사회적 효용성이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인간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존엄성을 가지고 인권을 누려야 하는 근거를 탐색하고 체득한다.
- ② 인간의 삶이 단지 살아가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올바름의 규범을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를 고찰하면서 인간의 만남을 올바르게 조직하는 방도를 구상한다.
- ③ 좋은 삶이란 무엇이며, 좋은 삶을 만드는 아름다움의 근원과 그에 대한 체험이 어떻게 행복으로 연결되는지 검토해 본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각자에게 좋은 삶'과 '모두에게 좋은 삶'이 서로 일치하거나 일치할 수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좋음'에 대한 의미를 토의해 본다.
- ② 그 어떤 삶이든 삶의 전제로서 '인간으로 실존한다.'는 것 자체를 권리의 근거로 인정하는 인권 사상의 철학적 정당성과 그 내용의 확대 및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
- ③ 타자의 인권을 무시할 경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동, 사회적 약자,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른 인종 출신자 등을 예로 들어 고찰해 보자.
- ④ 인간 존엄성의 자기표현으로서 자존감의 확보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해 본다.
- ⑤ 아주 소규모 공동체에서부터 지구상의 인류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를 불문하고,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옳다(=정당하다)고 수긍하는 인간질서의 규범적 원칙을 '정의'라고 했을 때, 정의는 부당한 행위와 제도를 비판하고 척결하는 근거임을 이해한다.
- ⑥ 부당한 행위나 제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보복적 정의, 분배적 정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 등과 같은 정의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해 본다.
- ⑦ 모든 권리의 행사는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자유의 실천은 정의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는 명제는 상호간에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의 대립들을 가장 정당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원칙임을 이해한다.
- ⑧ 정의의 최종 목표는 모든 인간들이 정의로운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평화 속에서 공존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플라톤의 『국가』에 나온 정의론은 이런 견해의 가장 고전적인 표출임을 독해한다.
- ⑨ 눈앞의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온갖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간은 왜 별도로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들을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인간은 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춤을 출까? 살아가면서 말하고 글쓰는 일이 일상적인데 왜 따로 시를 짓고, 소설을 쓰고, 연극이나 영화를 꾸밀까? 그리고 늘상 우리 주변에 수많은 풍경을 보고 살면서도 왜 굳이 더 경치 좋은 곳이나 낯선 곳을 찾아갈까? 아름다움의 창출과 관련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유형별로 파악하면서 그런 '표현적 활동들의 각종 동기들'을 그 활동의 주체인 예술가, 운동가, 작가, 관광객, 그리고 관객이나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 ⑩ 자연과 예술 작품 또는 문화적 재화의 생산과 향유는 보통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되는 체험과 관련된다. 아름다움은 분명히 향유자의 주관적 '취향'에 따라 심하게 달라지는 '주관적 감성'이

다. 이런 관점에서 아름다움이나 열정을 추구하거나 찾아가는 이들이 왜 그것을 추구하는지 파악해 본다.

- ⑪ 하지만 어떤 작품이나 활동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같이 동시에 ‘아름답다’고 함으로써 아름다움의 느낌은 주관적 감성을 넘어서는 ‘공통감각’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주관을 넘어서는 공통감각의 핵심으로서 아름다움의 체험과 평가에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본다.

- 주요 학습 요소 : 인간의 가치, 인간의 질서, 규범, 좋음, 옳음/정당함, 아름다움, 존엄성, 자유, 권리, 인권, 정의, 평화, 예술, 취향, 공통감각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가치 개념은 ‘아직 내게 없는 것’을 위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움직여 변화시키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내포하므로 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아직 내게 없는 것’을 지향(志向)하게 되는지를 일깨우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따라서 학생들 각자에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직접 선정하여 통찰하도록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② 바로 이 과정에서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닥친 경험들을 풍부하게 제시하도록 노력한다.
- ③ 가치는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임(subjective evaluation)과 동시에 지극히 공통적인 척도(common measure)라는 양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학생들의 가치태도가 이 양극단 안에서 가치극대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로 논변의 과정을 투입한다.
- ④ 보통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존엄성, 정의, 평화, 좋은 삶, 아름다움의 통상적 관념 안에 파당성 또는 편파성이 없는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한다.
- ⑤ 가치 평가에는 항상 반대선이 형성되며 마련이므로 논쟁성 있는 반대의견을 반드시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선정하여 ‘아직 내게 없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주목한다.
- ② 이렇게 도출해낸 가치지향이 공통적인 척도 특히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③ 보통 우리 사이에 통용되는 존엄성, 정의, 평화, 좋은 삶, 아름다움의 통상적 관념과 자기 발상 사이의 가치충돌을 판별해낼 수 있는지 주목한다.
- ④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반드시 거론하도록 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평가척도에서 교사의 선입견이나 통상적인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자기와 반대되는 견해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신념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한다.

4.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 첫째 철학을 가르칠 때는 철학사나 철학 지식이 아니라 ‘철학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철학함’을 시연하도록 한다.
- 둘째 무엇보다도 철학함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상대방의 말이나 글을 철학적으로 경청하거나 읽는 것이다.
- 셋째 철학 교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사와 학생이 철학적으로 문제 제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교사가 학생보다 특정 결론을 미리 내리거나 특정 전제를 강요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 넷째 철학 교사는 학생들의 철학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것과 연관된 철학적 배경지식과 철학적 역사와 항상 비축해 두었다가 문제 상황이 전개되면 바로 연결시켜 ‘학생’의 철학함과 철학사에서 이룩한 철학함의 성과가 연관됨을 확신시켜야 한다.
- 다섯째 철학을 공부할 때는 이 시대가 제공하는 정보 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철학함의 능력이 체득되면 항상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철학적 글읽기와 생각하기를 실현한다.
- 일곱째 철학적 표현에 있어 토론하기와 글쓰기가 체질화되도록 함으로써 아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 한다.

가. 교수법

(1) 철학함의 실천

철학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철학 교사 자신이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생활 과정에서도 학생들을 ‘자유로운 자아’로 상대하면서 자신이 자유로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학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의도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를 ‘자유로운 자아’로 성숙시키는 데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2) 철학적 경청

철학 교사는 우선 ‘귀기울여 들어주는 이(傾聽者)’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실행해야 한다.

- (가) 우선 철학 교사는 특정 주제나 쟁점이 던져졌을 경우, 일정 시간을 두고 학생들이 그것에 관한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충분하게 또는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 (나) 그 다음 철학 교사는 자신이 학생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생각되는 바를 요약하여 말한 학생에게 다시 들려줘 그것이 자기가 의도했던 것이라고 학생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한다.
- (다) 무엇보다 철학 교사는 대면하고 있는 학생이 말을 못하거나 글을 쓰지 못한다고 하여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교사는 학생들의 단편적인 어휘나 감정상의 표현을 살펴 학생을 대신하여 그/녀의 생각을 표현하여, 자신의 내면도 충분히 표출되어 전달될 수 있다고 자신에게 희망적 전망을 갖도록 노력한다.

철학적 경청을 통해 교사는 문제된 쟁점에 관해 학생이 학습 또는 상담 초기에 갖고 있는 생각에 관해 학생과 ‘상호이해’를 획득함과 아울러, 다음부터 진행될 학습 과정에 필수적인 ‘교육적 유대감’을 조성하여 가상적 철학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결속을 확보한다.

(3) 문제 제기자로서의 역할

철학 교사는 교실과 생활 과정에서 학생들이 묻기 이전에, 상대하는 학생들의 공부와 생활에 대해 사려 깊게 먼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문제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항상 자임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 (가) 학생들에 대해 먼저 물음을 제기한다는 것은 우선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적극적 신호로서 ‘관계 이어짐’의 첫 발판이 된다.
- (나) 학생들의 교과 공부와 생활에 대해 사려깊게 “왜?” 또는 “무엇을?” 또는 “어떻게?” 아니면 “무슨 뜻으로?”라고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학생들이 처해 있는 공부와 생활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이런 물음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공부와 생활에서 무엇이 잘 되어가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화를 촉진하고 ‘창의적’ 발상을 자극한다.

(4) 교과 학습 멘토로서의 역할

철학 교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학습할 기초 및 선택의 각종 교과목들에 대해 그것들이 관련된 이 시대 학문적 인식체계의 관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인식 근거

'들'을 소통해 줌으로써 지식과 공부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를 위해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필요한 것임을 남득하고 체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21세기 현재 지구 문명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로 진입해 있는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일깨움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 (가) 이를 위해 철학 교사는 최소한 각 교과목의 기본 개념에 대해 관련 분과철학에서 성립된 논의들을 숙지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과 연관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나) 나아가 철학 교사는 이런 기본 개념들을 다룬 동서양 철학 및 기타 교양 부분에서의 고전적 저작물들에 대한 기본 독서 경험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정보문화의 연출자로서 철학 교사

철학 교사는 정보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다체험 매체들을 선구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와 정신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철학적 자각에 이를 수 있도록 암과 매체의 다면적 연출자가 되어야 한다.

철학 교사는 해당되는 영역과 연관된 다매체 자료들을 확보하여 철학적 표현과 소통이 단지 문자매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폭넓고도 흥미롭게 체험시켜야 한다.

나. 학습법

철학 교과의 학습은 철학함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체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 학습에 효과를 올리도록 고무한다.

(1) 철학적 글읽기와 생각하기

- (가) 문제 찾기: 교과서나 철학 고전 등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접하거나 읽으면서 그런 텍스트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제'나 '관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를 가장 먼저 찾아내도록 한다.
(나) 비판적 검토: 위에서 찾아낸 쟁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텍스트 전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① 위의 쟁점에 관해 논자가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핵심 '개념'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이해한다.
② 위의 쟁점에 관해 논자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전제-결론'의 논증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③ 이렇게 재구성된 논증이 타당성과 건전성의 관점에서 논증의 합리성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검토한다.
④ 유사한 쟁점에 대해 위의 텍스트와 대립되는 주장을 담은 다른 텍스트들을 찾아서 그 근거

들을 역시 똑같은 절차에 의해 비판적으로 재검토 한다.

- (다) 판단의 실행: 위와 같은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판단하여 정리하도록 한다.

(2) 철학적 표현

(가) 토론하기(debate)

- ① 쟁점과 관련된 짧은 지문을 학생들에게 미리 나누어주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A4용지 반쪽 분량으로 글을 써오게 한다. 이 때 쟁점이 반드시 철학 교재에 소개된 주제들일 필요는 없으며, 특히 학생들이 평소에도 자신의 견해를 가질만한 주제를 선택한다.
- ② 학생들이 글을 써오면, 그 글을 보고 그대로 읽게 하기보다는 말로 진술하도록 하고, 주어진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를 학생 스스로 해명하게 한다.
- ③ 학생들이 서로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도록 유도하며,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가능한 학생들이 서로 지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사들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한다.

(나) 글쓰기(writing)

- ① 철학적 글쓰기를 하기 이전에 맞춤법, 띄어쓰기, 단락구분, 원고지 사용법 등, 글쓰기를 위한 문장 작성의 기본을 숙지하게 한다.
- ② A4용지 반쪽 분량의 글을 쓰는 연습이 끝나면, 최소한 2-3회에 걸쳐 A4용지 한쪽 분량으로 글을 쓰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의 구성은 대략 ‘문제제기-일반적인 견해 또는 자신의 견해 제시-그 견해의 문제점 지적과 반론 제시-반론이 제기하는 새로운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결론’의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 ③ 학생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견해들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너무 자세한 정도가 아니면, 장래에 참고하도록 철학적 저술들의 내용과 목록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그 철학자들이 왜(어떤 근거에서) 그런 견해를 갖게 되었는가 하는 배경(근거)을 해명해 주고 그 내용은 앞의 ‘철학적 글읽기와 생각하기’에 준하여 학생 스스로 파악하도록 한다.

(3) 토론 및 글쓰기 지도와 관련된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교사가 학생들이 써온 글에 대해 매번 첨삭지도를 하는 것이 요구되며 또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당 50명 이상의 글에 대한 첨삭지도를 하는 것은 교사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

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단위: 철학 교사 1명이 학급당 50명씩 10개 학급을 담당하는 경우)

- (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A4용지 반쪽 분량의 글을 써오게 한다.
- (나) 각 학급의 학생들을 5명씩 10개조로 나눈다.
- (다) 매주 각 학급 학생 10명(각 조에서 1명)의 글을 교사가 읽고 첨삭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교사는 매주 50명에 대한 첨삭을 하게 되며, 학생들은 5주에 1번씩 교사의 직접적인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다.
- (라) 각 조에 속한 나머지 4명의 글을 학생들이 서로 돌려가며 읽고 문제점을 지적해주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의 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도록 하여, 수업 전에 출력해오도록 한다. 수업시간에는 글을 쓴 학생이 자신의 글을 읽게 하고, 같은 조에 속한 다른 학생들은 글의 내용과 구성 등에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조언을 제안하도록 한다.
- (마) 첨삭을 함께 있어서 중요한 사항, 즉 어떤 사항을 지적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을 첨가해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지적해야 하는가 등의 사항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은 토론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 (바)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최소한 1번씩은 A4용지 1쪽의 좀 더 긴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4) 교과 영역 진도 운영의 유의점

- (가) 〈고교 철학〉의 4개 영역 구분은 우선 고등학교 기초 과목의 교과 내용에 대한 철학적 관심사의 쟁점 성격에 따라 정했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영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5단위가 배정된 교양 영역 시수에 맞추고, 교양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3학년 1학기에 걸쳐 5학기 실시한다는 ‘교양 영역 교육과정’의 시수 운영 원칙에 부합시킨 것이기도 하다.
- (나) 4개 영역 구분에서 맨앞에 배치한 ‘철학·자아론’의 수업은 학생들의 교과 수업과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함을 직접 체험하게 만든다는 데 기본적 의의가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익숙해 왔던 국어·수학·사회·과학/도덕 및 예체능/영어로 짜인 교과목 편제에 철학함을 자연스럽게 접속시키려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철학함을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체감시켜야 한다. 이 때 〈고교 논리학〉과 연계시켜 비판적 사고와 논증의 기능이 체질화되도록 하면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자기탐구가 이루어지도록 분위기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다) 철학·자아론에서는 공부의 문제를 知識(知識)의 의미와 의의에 연관시킴으로써 인식론의 고전적 견해들에 비추어 교과 공부의 기초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체득하도록 한다.
- (라) ‘인간론’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철학과 기독교의 전통 철학에서

- 제시했던 인간상과 질서 규범들을 반드시 소개하고, 〈경제〉, 〈정치〉 및 사회 관련 교과들에서 나온 내용이 배경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마) ‘세계론’에서도 역시 유교, 불교, 도교의 동양철학과 기독교의 전통 철학에서 제시했던 세계관을 고등학교 수학,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 문화, 역사에서 제시하는 세계관과 대비적으로 제시한다.
- (바) 1~3영역의 철학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할 경우 제4영역인 가치론에서 다루는 윤리적 문제들과 미학적 문제들에 좀 더 내실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6. 평가

철학 교과의 학습에 관한 평가는 학생들이 철학함을 실행한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평가 요소는 고교 철학 교과의 목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가. 주어진 말과 글의 텍스트가 다루는 ‘문제’의 발견과 그 문제 ‘맥락’의 적절한 표현
- 나. 발견된 문제와 관련된 논증에서의 핵심 ‘개념’의 이해
- 다. ‘전제(근거)-결론(주장)’으로의 논증의 재구성
- 라. 재구성된 논증에 대한 합당한 ‘평가’ (타당성, 건전성, 합리성)
- 마. 위의 평가에 대한 자기 ‘판단’의 정립
- 바. 위의 판단의 논증적 ‘표현’ (토론 및 논술)
- 사. 평가받은 학생들에게 평가의 개별적 공개와 아울러 평점에 대한 각자의 동의 확보
- 아.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교과공부와 일상생활에서 얻은 성과에 대한 자기 진술

철학 교사는 학생들의 철학함의 자기 성과들을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 실명 또는 익명으로 — 공개하여 평가받은 학생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는 결코 평점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오직 평가 받는 이가 동의한 평점만 평가의 결과로 학생기록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철학 교사는 자신의 평가에 학생의 자기 평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논리학

1. 성격

민주시민사회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논리학 과목은 부당한 추론과 오류를 피하고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학생들이 장차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이다.

논리학 과목의 위와 같은 특성은 특히 자기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처리능력 등의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첫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능력은 기초학습능력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키움으로써 자신의 삶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타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질 수 있다.

셋째, 학습 및 일상의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그리고 가용한 정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논리학 과목을 통해 이러한 사고력을 키움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기를 수 있다.

2. 목표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배격하고 정당한 주장에 합의할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들에 의해 실현된다. 논리학 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을 그러한 교양인으로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부당한 추론과 오류를 피하고, 정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의 고등학생들이 스마트 기기에 친숙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신세대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마주치게 되는 엄청난 정보의 흥수 속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찾아내고, 또한 그렇게 찾아낸 정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며, 더 나아가 이성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좀 더 구체적인 논리학 과목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합리적 토론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이해한다. 특히 정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의 구분을 이해한다.
- 둘째,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의 구분을 이해한다.
- 셋째,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연역논증의 기본형식을 이해한다.
- 넷째, 귀납논증의 기본 특성을 이해한다.
- 다섯째, 일상생활이나 교과학습 중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부당한 논증을 식별하고, 이를 논박하는 방법을 배운다.
- 여섯째,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리적 글쓰기와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논증의 분석과 유형	추론과 논증	추론 또는 논증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논증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이해능력
	정당성과 부당성	정당한 주장은 적절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연역논증과 귀납논증	논증은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으로 구분된다.	
연역논증	타당성과 건전성	명제논리 논증에는 전전긍정논증, 후건부정논증, 선언삼단논법 등이 있다.	연역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구분하는 능력
	정언진술과 벤 다이어그램	정언진술들로 이루어진 술어논리 논증의 타당성 여부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판정할 수 있다.	
귀납논증	귀납적 정당화	구체적인 관찰에 관련된 전제들로부터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일반화는 귀납논증의 가장 대표적 유형이다.	정당한 귀납논증과 부당한 귀납논증을 구분하는 능력
	통계적 삼단논법	통계적 삼단논법은 통계적 일반진술을 전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귀납논증이다.	
오류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	오류에는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가 있다.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
	오류확인과 반박	오류논증의 여러 유형들을 배움으로써 틀린 논증에 혼동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논증의 활용	숨은 전제와 숨은 결론	전제들의 일부 또는 결론이 생략된 채로 논증이 제시되는 경우 숨은 전제 또는 숨은 결론을 보충함으로써 논증을 완성된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논증 활용 능력
	복합논증	여러 논증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논증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구성을 통해 여러 논증들로 구분해야 한다.	
	논증의 재구성과 평가	토론과 논쟁에서 논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 논증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논술	글쓰기에 논증을 잘 활용하면 좋은 논술을 할 수 있다.	

나. 성취기준

(1) 영역 1: 논증의 분석과 유형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을 쓰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 이해한다. 논증이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됨을 이해한다. 또한 논증이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으로 구분됨을 이해한다.

- (가) 생각함에 있어서 추론 또는 논증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한다.
- (나) 쟁점이 되는 주장을 결론으로 놓고, 근거를 전제로 삼아 논증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논증인 것과 논증이 아닌 것의 차이를 이해한다.

(다) 연역논증과 귀납논증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주장 또는 정보들이 모두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주장되거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어진 주장 또는 정보를 꼼꼼히 따져 보고, 과연 받아들일만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다.
- ② 추론은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이를 말로 표현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를 논증이라 부름을 이해한다. 또한 논증을 제시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주장을 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 ③ 연역논증은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는 강한 주장을 포함하는 반면, 귀납논증은 전제가 단지 결론을 받아들일만한 좋은 근거를 제시함을 주장한다는 차이점을 이해한다.

- 주요 학습 요소: 추론, 논증, 전제, 결론, 근거, 주장, 연역논증, 귀납논증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어도 중요한 주장들에 경우엔 ‘왜?’라고 묻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은 연후에야 이를 받아들이는 능동적 자세를 취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시킨다.
- ② 학생들이 논리학의 중요 개념들을 우리의 실제 삶과 무관한 단지 추상적 개념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용적 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을 가급적 구체적 예들과 연관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학생들이 사실에 관한 진술과 논증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다시 말해 논증은 한 특정한 진술이 아니라, 전제(또는 전제들)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진술들의 집합임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② 학생들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학습요소를 이해하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급적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활용한다.

(2) 영역 2: 연역논증

타당성과 전전성을 중심으로 연역논증의 특성들을 이해한다. 명제논리 논증의 기본 유형을 파악하고, 논리적 연결사를 표현하는 용어들을 통해 명제논리 논증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명제논리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진리표를 이용해 판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한 연역논증의 부당성을 반례를 통해 입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정언진술들로 이루어진 술어논리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판정하는 방법을 배운다.

(가) 타당한 논증과 전전한 논증의 차이를 이해한다.

(나) 명제논리 논증들의 기본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다.

(다) 명제논리 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진리표를 이용해 평가할 수 있다.

(라) 연역논증의 부당성을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마) 정언진술들로 이루어진 술어논리 논증, 특히 삼단논법논증의 타당성 여부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판정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 기준 해설

- ① 타당한 논증은 전제들이 참인 경우 결론도 반드시 참인 논증이고, 전전한 논증은 타당하면서 또한 전제들이 모두 참인 논증임을 이해한다.
- ② 명제논리 논증들의 기본 유형들, 예컨대 전진긍정논증(modus ponens), 후진부정논증(modus tollens), 선언삼단논법(disjunctive syllogism) 등의 논증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다.
- ③ 명제논리 논증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을 진리표를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④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동일한 형식의 논증을 반례로서 제시함으로써 연역논증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⑤ 고등학생 수준에 맞게 정언진술들로 이루어진 삼단논법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증명한다. 단 다양한 술어논리 논증들의 타당성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다룬다.

- 주요 학습 요소 : 타당성, 건전성, 명제논리, 술어논리, 진리표에 의한 타당성 평가, 반례에 의한 부당성 입증, 정언진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타당성 평가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다소 인위적일지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단순한 예들을 이용해 ‘타당성’과 ‘부당성’의 개념을 학생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② 학생들이 명제논리와 술어논리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술어논리를 다룰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껴 지루해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논증형식들의 쉬운 예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 ③ 정언진술들 간의 논리적 관계를 이해시킨다. 예컨대 전칭긍정진술과 특칭부정진술은 모순관계이고, (주어가 지시하는 것이 존재할 경우) 전칭긍정진술과 전칭부정진술이 반대관계임을 이해시킨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전제들과 결론을 구분함으로써 논증을 찾아낼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② 타당성과 건전성의 구분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③ 명제논리 논증들의 기본 유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④ 명제논리 논증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을 진리표를 이용해 증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⑤ 연역논증의 부당성을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⑥ 정언진술들로 이루어진 삼단논법논증의 타당성 또는 부당성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학생들이 기본 개념들을 명확히 체득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가급적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 또는 내용의 논증들을 활용한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복잡하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증들은 가급적 다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영역 3: 귀납논증

귀납논증은 전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결론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증하지 않음을 이해한다. 따라서 귀납논증은 타당성 여부로 평가될 수 없고, 그 대신 전제들이 결론을 옹호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됨을 이해한다.

- (가)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증하지 않는 귀납논증의 특성을 이해한다. 특히 귀납적으로 정당화 되는 논증과 귀납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논증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나) 구체적인 관찰에 관련된 전제들로부터 보다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적 일반화의 특성을 이해한다. 또한 귀납적 일반화가 너무 적은 사례들에 의존하는 경우 정당화되지 않음을 이해한다.
- (다) 통계적 일반진술을 전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장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통계적 삼단논법의 특성을 이해한다.

〈교수·학습 방법〉

-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② 귀납적 일반화(inductive generalization)의 결론은 전제보다 더 일반적인 주장이다.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들은 검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와 같은 형태의 추론을 귀납적 일반화의 사례로 이해한다. 또한 귀납적 일반화를 위해 선택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 ③ 통계적 삼단논법(statistical syllogism)의 전제는 통계적 일반화이고, 이것의 결론은 보다 구체적인 주장이다.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대수술을 받은 대다수의 90세 이상의 노인들은 심한 수술 후유증을 겪는다. 영자 할머니는 93세이고, 얼마 전 위암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아마도 영자 할머니는 수술 후유증을 심한 수술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을 통계적 삼단논법의 사례로 이해한다.

- 주요 학습 요소: 귀납논증, 귀납적 일반화, 통계적 삼단논법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고등학교의 교양교과로서의 논리학 과목은 논리학에 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한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 과목이어야 한다.
- ② 귀납적 일반화와 통계적 삼단논법 이외에도 다른 유형의 귀납논증들(예컨대 유비논증)이 있음을 이해시킨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일상의 사례를 확인하고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다룬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전제의 참이 결론의 참을 보증하지 않는 귀납논증의 특성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 ② 어떤 경우에 귀납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귀납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모호한 경우들은 가급적 평가에서 배제한다.

(4) 영역 4: 오류

논증과정에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익히며, 특히 일상생활이나 교과학습에서 발견되는 오류들을 판별하고 논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가) 논리적 오류가 부당한 논증의 사례임을 이해하고, 거짓된 진술과 혼동하지 않는다.

(나)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의 구분을 이해한다.

(다) 형식적 오류에 속하는 전건부정의 오류와 후건긍정의 오류를 이해한다.

(라) 비형식적 오류들의 대표적 유형들, 예컨대 논점 이탈의 오류(red herring), 선결문제 가정의 오류(begging the question), 성급한 일반화(hasty generalization) 등의 오류 유형들을 이해한다.

(마) 겉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옳지 않은 논증이 왜 오류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논박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 기준 해설

- ② 형식적 오류에 속하는 전건부정의 오류와 후건긍정의 오류를 이해한다.
- ④ 형식적 오류와 달리, 비형식적 오류를 범하는 논증은 단지 논증 형식만을 통해 오류임을 알 수 없음을 이해한다.

- 주요 학습 요소: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전건부정의 오류, 대표적 비형식적 오류들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학생들이 오류의 유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명확한 오류의 사례들을 예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오류의 이름보다는 학생들이 주어진 오류가 왜 오류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둔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학생들이 오류들의 대표적 유형들을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학생들이 주어진 오류가 왜 오류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5) 영역 5: 논증의 활용

교과공부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주장을 논증의 형태로 정리하고, 각각의 타당성 또는 정당성을 평가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주장을 중에서 옳은 주장을 골라내고, 그릇된 주장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가) 제시된 주장이 적절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지, 아니면 근거가 부족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근거나 이유가 제시된 것을 ‘논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나) 전제와 결론을 확인하고, 자비의 원리에 입각해 숨은 전제 또는 숨은 결론을 보충함으로써 완결된 논증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다) 여러 논증들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라) 토론과 논쟁에서 각각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 논증 형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재구성된 논증을 평가할 수 있다.
- (마) 비판적 읽기, 창의적 문제 설정 및 해결, 논리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논리적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논술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방법〉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① 논의되는 쟁점을 파악한 후 그 쟁점을 기급적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

- 해시킨다.
- ②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대개의 논증들이 전제들의 일부 또는 결론이 생략된 채로 제시된다 는 사실을 이해시킨다.

- 주요 학습 요소: 숨은 전제, 숨은 결론, 논증의 재구성, 토론과 논쟁의 차이, 논리적 글쓰기

(나) 교수·학습상의 유의점

- ①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주장에 접하게 될 때 왜 그 주장이 부당한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 한다.
- ② 합리적 토론과 말싸움의 차이를 이해하고, 말싸움이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③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때 적절한 근거를 댐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지도한다.
- ④ 토론 또는 논술의 주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가급적 서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가) 평가 방법

- ① 학생들이 배운 논리적 지식을 활용하여 논리적 글쓰기 또는 토론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② 학생들이 자신이 옹호하고자 하는 견해에 부합하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③ 학생들이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견해를 조리 있게 비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 평가상의 유의점

- ① 논리적 지식을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적절한 근거를 토대로 옹호하고자 하는 합리적 태도를 취하는지에 보다 주안점을 둘서 평가한다.
- ② 타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주장되는 바의 근거를 꼼꼼히 따져본 연후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태도를 취하는지에 보다 주안점을 둘서 평가한다.
- ③ 논리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보다는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 및 합리적 토론의 중요성을 이해하는지에 보다 주안점을 둘서 평가한다.
- ④ 비판적 글쓰기에 대한 평가를 전반적인 평가 외에도 단계들을 세분하여 각 학생이 어떤 단계에 특히 취약한지 평가한다. 이 단계들의 한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글이나 토론에서 논증을 확인함 → (생략된 전제 또는 결론을 보충함으로써) 논증을 재구성함 → 전

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평가함 → 이와 같은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증을 구성함 → 이 논증을 토대로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

4. 교수 · 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 · 학습 방향

(1) 거시적 교수 · 학습 방향

논리학 과목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표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부당한 주장을 배격하고 정당한 주장에 합의할 수 있는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논리학 교사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지식의 수용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어도 중요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왜?’라고 묻고,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을 얻게 된 연후에 이를 받아들이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동적 태도를 바탕으로 스스로 어떤 주장을 하고자 할 때는 적절한 근거에 뒷받침된 주장을 하고자 하고, 타인이 정당한 주장을 하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합리적 자세를 취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2) 교수 · 학습 방법

(가) 교수 · 학습자 특성에 따른 자율적 운영

논리학 과목은 교과과정에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초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복잡한 논증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의 순서와 시간 배당을 위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 학생들의 관심사, 그 외의 필요성에 따라 영역의 순서와 시간 배당을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다양한 교수 · 학습 자료와 매체 개발

논리학의 기본 개념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명확하고 단순한 예들을 사용해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논리학’ 교양과목은 단지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는 과목이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지식을 제공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단계를 벗어난 이후에는 일상생활, 인터넷, 다른 교과 등 다양한 영역들로부터 좋은 토론 소재 및 논증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수 · 학습 계획 수립

학생들은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사에 따라 개인차가 크다. 특히 논증을 확인하고 이를 표

준형식으로 재구성하는 능력, 논증을 분석하는 능력, 논증을 제시하는 능력, 오류를 파악하는 능력 등에서 개인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 및 개인차를 반영해 수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 학습자 활동 중심의 수업 설계

각 단원 영역별로 교수·학습 방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질의응답, 토론, 실습 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한다. 특히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각 교과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상호간의 적극적인 질의응답, 토론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논증 확인, 논증 재구성, 논증 분석, 오류 파악 등을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시의 적절한 주제 선정

논리학의 기본을 익히고 나면 그 활용가치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특히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최신 주제, 예를 들면 각종 웹 자료, 영화나 TV 등의 시청각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논리적 사고가 지니는 역할 및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3) 유의사항

- (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유도한다. 즉 자신의 주장을 전개할 때 적절한 근거를 댐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유도한다.
- (나) 토론 중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적절한 반대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반론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다) 교과서, 신문, 잡지, 교양서적 및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들 활용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을 높이도록 한다.

나. 평가 방향

(1) 거시적 평가 방향

논리학 과목에서의 평가는 교과의 성격과 목표, 영역별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과의 목표가 수동적인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감안하여 기초 개념들과 원리들에 대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도와 활용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하고,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에 중점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

(2) 평가 방법

(가) 절대평가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속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학 과목의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

(나) 이론적 지식의 평가

논리학 과목에서 이론적 지식의 평가는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초개념들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중점을 둬야한다.

(다) 활용능력의 평가

논리학 과목의 목표는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따라서 논리학 과목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평가는 활용능력의 평가이다. 즉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능력, 상대방 논증을 비판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라) 다원화된 평가방법의 모색

논리학 과목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 및 토론에 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각자의 상이한 단점 및 부족함을 자신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평가방법을 모색한다.

(3) 유의 사항

논리학 과목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고,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교양인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에는 자신의 생각에 대한 정직하고 반성적인 통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알리고자 할 때 취해야 하는 타인에 대한 진솔한 태도, 타인의 말이나 글에 대한 합리적 태도 등이 전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양을 학생들이 논리학 수업을 통해 키울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또한 타인의 주장이 자신과 다르더라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합리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평가가 돼야 한다.

논술

1. 성격

'논술'은 합리적 설득 및 지식의 수용과 전달을 위한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으로서 '논리적 글쓰기'를 말한다. 따라서 시나 소설 또는 수필을 쓰는 문예적 목적의 글쓰기와 구별되며, 일상적 삶에서의 권리나 이익 추구와 연관된, 실용적 목적의 글쓰기와도 다르다. 마찬가지로 교양교과 과목으로서의 '논술'은 지적 혹은 학문적 탐구의 영역에서의 글쓰기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화법과 작문' 과목과 구별되며, 다양한 교과 학습 및 독서 활동 등을 통해 학습한 분과 학문적 지식을 통합하여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하는 '교과 통합적' 성격을 지닌다.

논술 능력은 학문적 탐구와 합리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소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만 교육되었을 뿐, 정규 교육과정의 차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논술 과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의 논리적 글쓰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논술 과목의 정체성 및 주변 교과목들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관련 교과목들 간의 교육적 연계가 이뤄질 때 비로소 고등학생의 지적 의사소통 능력 및 학력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논술 과목은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정보처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함양에 기여한다.

첫째, 의사소통 역량은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에 작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역량은 텍스트를 이해·분석·평가·비판하고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셋째, 정보처리 역량은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다.

넷째, 문제해결 역량은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갈등 상황에 직면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이 제시한 해결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량이다.

2. 목표

논술은 합리적 설득과 학문적 탐구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그에 기반하여 개별 교과의 심화학습 및 교과 통합적 학습능력 배양,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활용법 습득, 학습 윤리 함양 등을 총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논술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으로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한다. 합리적 설득이라는 의미는 적절한 논거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문적 소통은 주로 입말보다 글말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논술 과목을 통하여 함양한다.
- 둘째, 학문적 탐구 및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비판적 사고력을 계발한다.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논술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비판적 사고는 텍스트를 이해·분석·평가·비판하고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즉, 기존의 주장이나 상반되는 주장이 있을 때 이를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지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논술이라면 이 논술의 전제가 되는 비판적 사고력을 계발하는 것이 논술 과목의 목표 중의 하나이다.
- 셋째, 문제나 갈등 상황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재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현대 사회는 암기한 지식만으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논술은 다른 교과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문제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제시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해결 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넷째, 개별 교과 내용을 글쓰기에 활용함으로써 개별 교과 심화 학습 그리고 더 나아가 교과 통합적 학습 능력을 함양한다. 논술 과목의 학습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모든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삼아 논술을 쓰는 과정에 활용하게 되므로 개별 교과 지식이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학습 경험을 하게 된다. 논술 과목은 이러한 고차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으로서의 목표를 갖는다. 또한 각 교과에서 따로 학습한 내용을 문제 해결에 동원하는 학습 방식이므로 ‘교과 통합 학습’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 다섯째, 올바른 자료 활용법을 익히고, 학습 윤리 의식을 형성한다. 논술 과목을 학습하며 찾는 다양한 자료를 정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습관을 갖고 타인의 자료를 타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정직한 글쓰기’를 경험하며 지성인 학습자의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논술과 비판적 사고	논술의 정의	논술은 지식·정보의 수용과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이다. 논술은 자기주도적 학습 양식이다.	논술의 정의와 논술 교육의 필요성 이해하기
	논술과 비판적 사고	논술은 비판적 사고와 심층적 연관관계가 있다. 비판적 사고는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 평가 및 새로운 텍스트의 산출에 필수적인 정신적 소양이다. 논술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더욱 향상된다.	
	논술의 기능	논술은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 기능을 한다. 논술은 비판적 사고력 강화 기능을 한다. 논술은 심화 학습 기능을 한다. 논술은 교과 통합적 지식 습득의 수단이다.	
분석적 글쓰기	분석글의 성격과 유형	분석적 글쓰기는 텍스트의 핵심 내용 이해를 목적으로 분석하는 글쓰기이다. 분석적 글쓰기는 '단순 요약'과 '논증적 요약'으로 구분된다.	텍스트 유형별 요약 지침에 따라 텍스트를 요약하는 분석적 글쓰기
	단순 요약 지침과 적용	단순 요약 대상에는 문자 텍스트와 비문자 텍스트가 있다. 단순 요약문 작성 방법에는 핵심어를 활용하는 방식,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 여러 사례들을 포괄하는 방식, 등이 있다.	
	논증적 요약 지침과 적용	논증적 요약은 텍스트에서 현안, 핵심어, 주장, 근거를 찾아 정리하는 것이다. 논증적 요약 지침에 따라 분석적 글을 작성한다.	
	분석적 글쓰기의 표현 전략	명료하게 표현했는가? 문장들은 간결한가? 쉬운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비판적 글쓰기	비판글의 성격과 유형	비판글이란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점이나 한계를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다. 비판글에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글과 비판한 뒤 대안을 덧붙인 글이 있다.	비판 지침에 따라 텍스트를 평가하는 비판적 글쓰기
	비판 지침과 적용	비판 지침에는 '명확성', '유관성', '타당성', '올바름', '사고의 폭과 깊이' 등이 있다. 비판 지침에 따라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비판글을 작성한다.	
	대안 모색 및 제시 방법	글쓴이의 견해 또는 문제 해결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정당화한다.	
	비판적 글쓰기의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말꼬리집기식 비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역	핵심 개념	내용	기능
문제 해결적 글쓰기	표현 전략	<p>자신이 작성한 글의 표현이나 내용에서 인신 공격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자신이 작성한 글이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무익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자신이 작성한 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비판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p>	논술문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주의사항 이해하기 / 현안에 따른 논술문 작성하기 / 논술문 퇴고와 수정하기
	문제 해결적 글의 성격과 유형	<p>논술문은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 즉 특정한 현안(혹은 논의 주제)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혹은 해결책)를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입증, 논증)함으로써 독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다.</p> <p>논술문의 일반 구성은 '도입, 본론, 마무리'로 이루어져 있다.</p> <p>논술문에는 논의 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것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있다.</p>	
	논술문 작성을 위한 탐구 과정	<p>논술문의 주제를 설정하기 위해 관심사로부터 현안 또는 논의 주제를 정한다.</p> <p>논술문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색한다.</p> <p>논술문 작성을 위해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잠정적 해결책을 도출한다.</p> <p>설정된 현안과 잠정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한다.</p>	
	논술문 작성 과정	<p>논술문의 도입부에는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주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간다.</p> <p>논술문의 본론에서는 해결할 구체적인 문제 또는 세부 주제를 정립하고 명확히 제시한 내용이 담겨있다.</p> <p>논술문의 본론에서는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해결책 또는 견해를 정당화한다.</p> <p>논술문의 본론에는 해결책 또는 견해에 대한 예상 반론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이 들어간다.</p>	
	논술문의 퇴고와 수정	<p>논술문의 마무리는 본론에서 다른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책 또는 견해의 핵심 내용의 간략한 재진술이다.</p> <p>논술문의 마무리에는 자신의 해결책(또는 견해)이 지니는 함축 또는 전망이 포함된다.</p>	
	올바른 자료 활용법	<p>작성한 논술문의 논의 전개가 자연스러운지 살펴본다.</p> <p>작성한 논술문에서 불명확한 표현이나 문장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p> <p>작성한 논술문에서 문법적 오류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p> <p>작성한 논술문은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p>	
	학습 윤리	<p>다양한 참고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한다.</p> <p>찾아낸 자료를 '인용' 또는 '참고'한다.</p> <p>주석을 디는 방법에 따라 인용의 출처를 밝힌다.</p> <p>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p>	
	학습 윤리	<p>표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p> <p>표절은 부도덕하다.</p>	

나. 성취기준

(1) 영역 1 : 논술이란 무엇인가

이 영역은 논술의 실제적 능력을 기르기에 앞서 학생들로 하여금 논술의 정의, 논술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논술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영역이다.

• 논술의 정의

- ① 논술이 합리적 설득 및 지식(정보)의 수용과 전달을 위한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임을 이해한다.
- ② 논술이 자기주도적 학습 양식임을 이해한다.

• 논술과 비판적 사고

- ③ 논술과 비판적 사고가 맺는 심층적 연관관계를 이해한다.
- ④ 비판적 사고가 다양한 텍스트의 분석, 평가 및 새로운 텍스트의 산출에 필수적인 정신적 소양임을 이해한다.
- ⑤ 논술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더욱 향상됨을 이해한다.

• 논술의 기능

- ⑥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 양식으로서 논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⑦ 논술의 비판적 사고력 강화 기능을 인식한다.
- ⑧ 논술의 심화 학습 기능을 인식한다.
- ⑨ 논술이 교과 통합적 지식 습득의 수단임을 인식한다.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논술은 단순히 글쓰기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쓰기 과정에서 다양한 교과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이를 통해 사고력이 신장되고, 교과 내용의 심화 학습 또는 통합 학습이 가능해진다.

○ 주요 학습요소

- 논술의 정의에 대한 이해
- 논술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에 대한 이해
- 논술의 기능에 대한 이해

(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논술의 정의, 논술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논술의 기능 등에 대한 이해는 논술을 학습하기에 앞서 학습자와 교사가 목표를 공유하는 과정이며,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갖게 되는 계기이므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예시 사례를 통하여 학생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

○ 평가 방법

- 학습 요소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 혹은 느낀 점을 써 오게 해서 발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평가 유의 사항

- 지식을 지필평가로 확인하지 않는다.

(2) 영역 2 : 분석적 글쓰기

이 영역은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적 글쓰기의 성격과 유형을 이해하게 하고 분석적 글쓰기의 두 유형인 단순 요약과 논증적 요약 방법을 익히며, 그에 적합한 표현 및 서술양식을 익히도록 하기 위한 영역이다.

• 분석글의 성격과 유형

- ① 분석적 글쓰기란 텍스트의 핵심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의 글쓰기임을 이해한다.
- ② 분석적 글쓰기의 두 유형으로서 ‘단순 요약’과 ‘논증적 요약’의 차이를 이해한다.

• 단순 요약 지침과 적용

- ① 핵심어를 활용하여 단순 요약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②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순 요약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③ 집합적 용어로 여러 사례들을 포괄하여 단순 요약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④ 그림, 표와 같은 비문자 텍스트를 단순 요약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⑤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 ⑥ 수리과학적 텍스트의 경우, 위계를 따르는 방식으로 단순 요약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증적 요약 지침과 적용

- ① 글쓴이가 다루고 있는 문제나 물음을 파악하여 의문문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을 익힌다.

- ㉡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말하려는 바(견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 ㉢ 글쓴이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용어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익힌다.
- ㉣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을 찾아 논리적 순서로 재배열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분석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논증적 요약문을 완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 분석적 글쓰기의 표현 방법

- ㉠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알기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수리과학적 텍스트의 경우, 적절한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분석적 글쓰기란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쓰기이다. 이를 위해 서는 텍스트의 논리적 유형을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분석적 글쓰기의 지침들을 적용해야 한다.
- 단순 요약이란 문자 및 비문자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글이며, 제시된 축약 요령을 적용해야 한다.
- 논증적 요약은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구조를 파악해 이것이 일련의 문장들의 논리적 재구성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주요 학습요소

-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독해가 요약의 바탕이 되므로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독해하는 연습이 선행해야 한다.
- 인문, 사회적 텍스트 및 수학, 과학적 텍스트뿐 아니라 도표나 그림 상징 등으로 구성된 비문자 텍스트도 요약하는 능력을 기른다.
- 단순 요약과 논증적 요약의 차이를 인식하고, 각각에 맞는 글쓰기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 각각의 요약 지침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학생의 이해 수준에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한다.
- 논술 이외의 교과에서 학습하고 있는 내용과 유관한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다.
-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토론 시간을 갖는다.

- 단순요약 또는 논증적 요약을 학생이 스스로 실습하는 시간 및 그에 대한 피드 백을 주는 시간을 갖는다.
- 피드 백 방식으로는 학생이 작성한 글을 발표하거나 화면으로 공유하며 같이 보면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 평가 방법

- 텍스트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 단순 요약한 글의 적합성 및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
- 논증적 요약 글의 논리적 짜임새, 주요 내용의 포괄 여부, 서술의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

○ 평가 유의 사항

- 분석적 글쓰기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
- 텍스트의 중요 내용에 대한 단순 발췌 보다는 나름의 논리적 짜임새를 갖추어 재구성한 글을 높이 평가한다.

(3) 영역 3 : 비판적 글쓰기

이 영역은 비판적 글쓰기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비판적 글쓰기에 필요한 지침 및 그 적용 방법을 익히며, 그에 적합한 표현 및 서술 양식을 익히도록 하는 영역이다. 특히 학생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 말꼬리 잡기식 비판, 논점을 벗어난 비판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한다.

• 비판글의 성격과 유형

- ⑦ 비판글이란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점이나 한계를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글임을 이해 한다.
- ㉡ 합리적 설득 및 학문적 의사소통에서 비판적 글쓰기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한다.
- ㉢ 텍스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글과 비판한 뒤 대안을 덧붙인 글의 차이를 이해한다.

• 비판 지침과 적용

- ㉠ [명확성의 기준] 글쓴이가 핵심어를 명확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유관성의 기준] 글쓴이가 논점을 일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 [타당성의 기준] 글쓴이의 견해가 제시된 근거로부터 (필연적 또는 개인적으로) 도출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④ [올바름의 기준] 글쓴이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옳다고 여길만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⑤ [논의의 폭과 깊이의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한 글쓴이의 논의가 폭넓고 깊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⑥ [오개념의 유무] 수리과학적 텍스트의 경우,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들 가운데 개념적 오류가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⑦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비판글을 완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 대안 모색 및 제시 방법

㉠ 글쓴이의 견해 또는 문제 해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방법을 익힌다.

㉡ 새로운 대안의 모색 및 그 정당화 방법을 익힌다.

㉢ 수리과학적 텍스트의 경우, 증명이나 검증 절차를 통해 오류를 수정·보완하고, 오개념의 글을 올바른 글로 변환하는 방법을 익힌다.

• 비판적 글쓰기의 표현 방법

㉠ 자신이 작성한 글이 추상적, 형식적 비판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 자신이 작성한 글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 혹은 말꼬리잡기식 비판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표현이나 내용에서 인신 공격적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이 논의의 핵심을 벗어난 무의한 비판이 아닌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함이나 사실적 오류 등을 포착하여 비판하는 글쓰기임을 이해한다.

- 비판적 글쓰기가 지식의 성장과 발전에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깊이 이해한다.

- 비판적 글쓰기에는 텍스트의 문제점에 대한 단순 비판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대안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수리과학적 텍스트의 경우에는 특히 개념적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념적 오류란 논리 전개와 주장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이다. 예컨대, “해가 동쪽에서 뜬다.”를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들수 있다.

○ 주요 학습요소

- 비판적 글쓰기에 필요한 지침들 각각을 실습을 통해 익힌다.

- 비판적 글쓰기의 지침들을 적용시켜 보고, 그에 대한 피드 백을 주는 실습을 반복해 수행한다.
- 가능한 경우, 텍스트에 대한 비판에 대안적 견해를 덧붙이는 연습을 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주관적 관점에 치우친 비판, 지엽밀단적 비판, 말꼬리잡기식 비판, 논점을 벗어난 비판 등 무익한 비판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주어진 텍스트를 비판한 뒤, 필요한 경우,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유도한다.
- 덧붙혀진 대안이 무리한 요구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가 섞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이 작성한 비판글에 대해 교사 혹은 동료의 피드백을 준다.

〈평가〉

○ 평가 방법

- 비판적 글쓰기의 지침들이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시된 대안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학생이 실제로 작성한 글의 수준을 평가한다.

○ 평가 유의 사항

- 비판 지식을 지필평가로 평가하지 않는다.

(4) 영역 4 : 문제해결적 글쓰기

이 영역은 문제해결적 글쓰기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논술문 작성을 위한 탐구 과정으로서 자료 탐색과 활용 방법을 익히며, ‘도입’·‘본론’·‘마무리’로 이어지는 실제의 작성 과정을 실습하고, 토고와 수정을 거쳐 하나의 논술문을 완성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영역이다.

• 글의 성격과 유형

- ⑦ 논술문은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 즉 특정한 현안(혹은 논의 주제)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혹은 해결책)를 정립하고, 이를 논증(입증, 정당화)함으로써 독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글임을 이해한다.
- ⑧ 논술문의 일반 구성(도입, 본론, 마무리)과 그 세부 요소들을 각각 이해한다.
- ⑨ 논술문의 논의 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스스로 설정해야 할지를 파악한다.

• 논술문 작성을 위한 탐구 과정

- ⑩ 논술문의 주제를 탐색하는 방법을 익힌다.

- 관심사로부터 현안(논의 주제)을 찾는다.
 - 해결을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검색한다.
 - 검색한 자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 ㉡ 설정된 현안문제와 잠정적 해결책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술문의 일반 구성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문장 개요를 작성한다.
 - 논술문 작성 과정
 - ㉠ 논술문의 도입부 작성 방법을 익힌다.
 -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술문의 주제를 꼭넓게 소개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논술문의 본론 작성 방법을 익힌다.
 - 해결할 구체적인 문제(혹은 세부 주제)를 명시적으로 정립하는 방법을 익힌다.
 - 구체적인 문제(세부주제)에 대한 해결책(혹은 견해)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을 익힌다.
 - 적절한 근거들을 제시하여 해결책(혹은 견해)을 정당화(논증)하는 방법을 익힌다.
 - 수리·과학 논술의 경우, 가설 설정 단계에서 수리·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는 방법을 익힌다.
 - 해결책(혹은 견해)에 대한 예상 반론을 검토하고, 그 반론에 대해 재반론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논술문의 마무리 작성 방법을 익힌다.
 - 본론에서 다룬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책(또는 견해)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재진술하는 방법을 익힌다.
 - 자신의 해결책(또는 견해)이 지니는 함축 또는 전망을 제시하는 방법을 익힌다.
 - 논술문의 퇴고와 수정
 - ㉠ 논의 전개가 자연스러운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불명확한 표현이나 문장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문법적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익힌다.
 - ㉣ 문맥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수리과학적 자료들의 진위 여부는 공인된 절차에 의해 확인하고 확인된 자료는 올바른 인용 과정을 통해 인용한다.
-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문제해결적 글쓰기는 이전 단계에서 길러진 글쓰기 능력을 바탕으로 특정한 현안(혹은 논의 주제)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혹은 해결책)를 정립하고, 이를 논증(입증, 정당화)함으로써 독자

를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쓰는 행위이므로, 완성된 논술문을 쓰는 단계 전반을 이해하고 논술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 창의적인 견해 혹은 해결책을 모색하여, 이를 정당화 문맥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요 학습요소

- 논술문 작성에 앞서 필요한 자료의 탐색 및 분석 등 연구 조사 과정을 익힌다.
- 도입, 본론, 마무리로 이어지는 논술문 작성의 전 과정을 익힌다.
- 논술문 작성 후 퇴고와 수정을 거친다.

(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논술문 작성의 각 단계를 단계별로 익힌다. 즉, 도입 쓰기, 본론 쓰기, 마무리 쓰기 등 단계별로 유의사항을 지켜가며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 작성한 글을 스스로 퇴고 수정하고, 다른 학생이 다시 퇴고와 수정을 하도록 한다.
- 학생이 작성한 논술문에 대해 교사가 반드시 피드백을 준다.

〈평가〉

○ 평가 방법

- 학생의 논술문을 설득력, 서술력,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각 단계별로 작성한 글에 대하여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동료 및 교사 평가 시 조언 또는 의견을 적어 논술문 작성자가 자기평가를 할 때 도움을 준다.

○ 평가 유의 사항

- 지식을 평가하지 않는다.

(5) 영역 5 :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

이 영역은 올바른 자료 활용법을 익히고, 표절의 정의 및 기준, 그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윤리를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글쓰기의 기본 소양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영역이다.

• 올바른 자료 활용법

- ㉠ 참고 자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자료 활용 방법으로서 ‘인용’과 ‘참고’의 차이를 이해한다.
- ㉢ 인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주석 다는 방법을 익힌다.
- ㉣ 참고문헌 목록 작성법을 익힌다.

• 학습 윤리

- ⑦ 표절의 정의 및 기준, 그리고 다양한 유형을 이해한다.
- ⑧ 표절의 위험성을 인식한다.
- ⑨ 글쓰기와 관련된 학습 윤리를 함양한다.

(가) 주요 성취기준 해설 및 학습 요소

○ 주요 성취기준 해설

- 신뢰할 만한 참고자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익힌다.
- 참고자료를 활용할 경우 올바른 인용을 통해 본인의 글과 타인의 글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 주석을 통해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방법을 익히고, 참고문헌목록 작성법을 학습한다.
- 올바른 인용, 주석 달기를 통해 글쓰기 윤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 주요 학습요소

- 참고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 인용 표시 및 주석 달기, 그리고 참고문헌목록 작성법을 익힌다.
- 표절을 예방하고, 글쓰기의 윤리성을 함양한다.

(나) 교수·학습 방법(전략) 및 유의사항

-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를 찾고, 자료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연습을 한다.
- 인용 표시 및 주석 달기, 참고도서 목록 작성을 구체적으로 실습한다.

〈평가〉

○ 평가 방법

- 표절 금지 등 글쓰기 윤리의 중요성에 인식도를 평가한다.
- 저작권 및 초상권 등 각종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다.
- 참고문헌 및 주석 달기를 실제로 작성한 결과를 평가한다.
- 동료 상호 평가 등을 이용한다.

○ 평가 유의 사항

- 자료 활용과 학습 윤리는 문제해결적 글쓰기의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앞 단원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글쓰기 윤리(강령)를 외워 쓰는 평가 또는 선택형 평가보다는 표절 등에 대해 민감하게 자기검

열을 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 평가한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논술교육과정은 합리적 설득 및 지식의 수용과 전달을 위한 ‘학문적 의사소통’의 주된 양식으로서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대입 논술고사에 적응한다는 실리적 목적으로는 논리적 글쓰기를 익혀 학문적 글쓰기 능력을 기르거나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술 과목의 교수·학습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교수·학습 방법

- 논술 과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의 논리적 글쓰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동시에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논술 교육의 성격에 비추어 학생의 논술 관련 능력이 신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논술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논술문을 쓰는 차원에서 실습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논술은 합리적 설득과 학문적 탐구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고 그에 기반하여 개별 교과의 심화학습 및 교과 통합적 학습능력 배양, 논술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활용법 습득, 학습 윤리 함양 등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논술 교육과정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순서에 의거하여 제시된바, 교육과정의 순서에 따라 학생의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각 내용체계의 단계에서는 각 단계에 적합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단원 목표에 맞는 글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단원의 순서에 의거하여 각 단원의 목표에 합당한 능력이 길러진 다음에 다음 단계의 글쓰기로 넘어가도록 한다.
- 각 단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글쓰기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분석적 글쓰기에 이어지는 비판적 글쓰기는 ‘텍스트가 지닌 논리적 결점이나 한계를 포착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글’을 쓰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론 혹은 반대 논리를 펴는 글을 쓰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수·학습 단계에서는 실제로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작성된 글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평가 방향

논술은 논술에 대한 지식보다 실제로 작성된 글을 바탕으로 논술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단원의 목표에 합당한 기준으로 작성된 글을 평가하는 방향에서 평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논술과목은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한 평가를 한다. 글에 대한 평가는 수시로 학생이 작성한 글에 대하여 학생 상호 평가, 대표작에 대한 교사 평가, 전수 평가 및 발표 후 좋은 글에 스티커 붙이기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이 평가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를 설계한다.
- 좋은 글은 국어 정서법을 지켜 써야 하며, 학습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술문을 써 가는 과정에서 글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향상되는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설계한다.
- 각 단원의 평가는 각 단원의 학습목표에 맞도록 평가 요소를 작성하여 미리 알려준 뒤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를 염두에 두고 총괄 평가를 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익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소홀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자필평가 기간에 논술문 작성 시험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에 논술문을 작성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점은 단원의 목표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